

13일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6813.34 (+234.30)		861.37 (+2.46)
	금리 (미국 9년)		환율 (원/달러)
	3.781 (-0.010)		1423.15 (+7.45)

수도권에 23만호 추가공급... 청년 등 실수요자 대출 확대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

신규택지 10만호 등 공급 속도전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기간
기존 68개월→37개월 대폭 단축
신속착공 위해 이주비 대출 개선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3%로 상향

정부가 수도권에만 23만호 이상의 추가 주택공급에 나선다. 이와 함께 기존 공공택지의 착공은 크게 앞당기고, 민간 재개발·재건축도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당근책을 내놨다.

대출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가계부채 총량 자체도 늘지만 이주비 대출 등 주택 공급과 직결된 경우 규제보다는 지원으로 방향을 틀었다. <관련기사 3·6면>

국토교통부와 관계부처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최근 아파트와 다세대·연립 등 일반주택 모두 매매, 전세, 월세가격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며 "공급 물량 확대뿐 아니라 공급 속도의 획기적인 혁신을 통해 수급 불일치에 따른 집값 불안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수도권에 23만 가구+α 규모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우선 서울 강서구와 경기 남양주시·광주시 등 3곳에 2만7200가구 규모의 신규 공택지를 조성하고, 연내 7만3000가구 이상의 후보지를 추가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공개된 신규 공택지 후보지는 서울 강서구 염창동과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광주시 장지동 등이다. 사진은 5만1000㎡ 부지에 1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인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일대 모습. /뉴시스

이번 대책은 신규택지 10만호를 포함해 수도권에 23만호 이상 추가 공급을 추진하고,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공급 속도를 대폭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먼저 공공택지는 최단기 착공 모델을 마련한다. 인허가, 보상 등 택지 조성단계 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됐던 절차를 병행하

거나 조기화해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절반 가까이 단축한다.

신규 공공주택지구로도 10만호 이상을 공급한다. 이번에 입지를 공개한 곳은 서울 강서와 남양주 도심, 경기 광주 등 3개 지구로 2만 7000호다.

재개발·재건축사업은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 23만4000호 착공을 목표로 지원한다. 신속한 착공을 위해 이주비 대출 개선과 공공기여 임대주택 인수가격 추가 상향 등의 패키지 인센티브가 마련된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공급"이라며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관건은 대책의 실행에 있는 만큼 범

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체계를 즉시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주택공급을 위한 금융지원도 확대되고, 청년 등 실수요자에게는 핀셋형으로 지원한다.

먼저 주택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필요성 등 최근 상황 변화를 감안해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을 기존 1.5%에서 3%로 상향한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에는 보증 규모를 올해 23조원, 내년 33조원을 집중 공급하고, 정비사업 보증상품 신설과 이주비대출 담보대출비율(LTV) 산정방식 합리화 등도 병행한다.

다만 투기적 대출수요는 차단하기 위해 전세대출 보증 대상을 비거주 1주택까지 확대하며, 성과급 등에 따른 과도한 대출을 막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기준도 바꾼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번 대책은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와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며 "보증공급 확대와 대규모 펀드를 통한 자금지원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는지, 청년 등 실수요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를 끝까지 확인하고 미흡할 경우 조속히 보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metro

빌게이츠, 오늘 방한... 'SMR 동맹' 속도

(소형모듈원자로)

한성숙 총리·정기선 회장 등과 면담 韓 기업과 테라파워 협력확장 기대

테라파워 창업자인 빌 게이츠 게이츠재단 이사장의 방한을 앞두고 국내 원전업계에서 소형모듈원자로(SMR) 사업 확대 기대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SMR 도입을 앞당기는 데 힘을 싣고 국내 기업들도 테라파워의 제조 공급망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이번 방한을 계기로 양측의 기술·제조·건설 분야 협력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게이츠 이사장은 14일 방한해 한성숙 국무총리와 면담하고 정기선 HD현대 회장, SK 경영진 등을 차례로 만날 예정이다. 이번 방한은 지난해 8월 이후 약 1년 만이다. 당시 게이츠 이사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김경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만나 "SMR이 AI나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의 전력 수요 증가에 효과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에도 AI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SMR 협력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테라파워는 미국 와이오밍주 케머러에서 소듐냉각고속로(SFR) 기반의 4세대



HD현대 정기선 수석부회장이 테라파워 빌 게이츠 회장이 지난해 8월22일 SMR 사업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원자로인 '나트륨(Natrium)'을 건설하고 있다. 2024년 6월 비원자력 시설 공사를 시작할 데 이어 지난 3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로부터 건설허가를 받았고 4월 원자로 건설에 착수했다. 후속 원자로 배치도 추진하면서 핵심 기자재를 반복 생산할 제조 공급망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HD현대가 지분 투자에서 핵심기기 제작과 제조 공급망 구축까지 협력 범위를 넓혀왔다. HD한국조선해양은 2022년 테라파워에 3000만달러(약 425억원)를 투자했으며 HD현대중공업은 2024년 12월 첫 나트륨 원자로에 들어갈

원자로 용기 제작을 수주했다. 양측은 지난해 3월 제조 공급망 확대에 협력하기로 했으며 올해 1월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도 SMR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5월에는 공급 기본합의서를 체결했고 테라파워는 HD현대중공업을 나트륨 원자로 외 함시스템 핵심 설비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번 회동에서도 후속 원자로 기자재 공급을 비롯한 추가 협력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SK(주)와 SK이노베이션은 2022년 테라파워에 총 2억5000만달러(약 3800억원)를 투자해 2대 주주에 올랐다. 올해 1월 한국 수력원자력이 SK이노베이션의 지분 일부를 인수한 이후에도 SK이노베이션은 2대 주주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두산에너지빌리티도 테라파워의 국내 제조 공급망에 참여하고 있다. 2024년 나트륨 원자로 주기기의 제작성 검토 및 설계 지원 계약을 체결한 뒤 첫 원자로에 들어갈 원자로보호용기와 원자로 지지구조물, 노심동체구조물 등 핵심 기자재 3종의 공급사로 선정됐다.

<2면에 계속>

/원관희 기자 wkh@



metro

'모두의 창업' 1만명 육성... 20일부터 접수

중기부, 선발 규모 두배로 늘리고
7년 이내 재창업자까지 자격 확대

정부가 8월20일부터 시작하는 '2차 모두의 창업'을 통해 총 1만명의 혁신 창업자를 발굴한다.

참가 자격도 '예비창업자 및 7년 이내 재창업자'까지 확대해 문을 넓힌다.

예비창업자는 전체의 80% 이상을, 지역 창업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창업자는 70% 이상을 선발한다. 하나은행, 신한스퀘어브리지,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추가로 참여하면서 보육기관은 170여 곳으로 늘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2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13일 오전 구윤철 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경제관계장관회의·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발표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2차 모두의 창업은 1차보다 선발 규모를 두배로 늘렸다. 1차 모두의 창업에 선발되지 않은 제도전자에게 제도전 멘토링 이수 여부 및 아이디어 보완 정도에 따라 가점을 주는 제도전 이력을 우대한다. '지식재산처 모두의 아이디어' 및 모두의 창업 대학 리그에서 발굴

한 우수 혁신 인재를 모두의 창업 패스트 트랙으로 연계한다.

보육기관 뿐만 아니라 각 보육기관의 멘토링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멘토의 자격 기준을 명문화하고, 멘토가 활동할 수 있는 기관은 최대 2개로 제한하기로 했다.

창업 도전 분야와 방식도 확대했다.

대학 창업동아리와 청소년들을 위한 창업 도전 기회를 넓혔다. 사회문제를 해결할 혁신 기술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자를 발굴·육성하는 '사회혁신 소셜벤처 리그'와 해외에서 글로벌 진출을 꿈꾸는 창업자를 위한 '글로벌 리그'도 신설한다.

선발과 지원 전 과정에서 공정성과 편의성도 높였다. 선발 과정에서 멘토3인의 공동심사와 기관별 심의위원회를 의무화하고 인공지능(AI) 생성물 검사와 외부데이터 기반 표절 검사를 위한 'AI 검증 모델'을 도입한다.

신청서 작성 항목도 기존 'WHY·WHAT·HOW 3개 항목'에서 도전자의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READY', 기창업자·제도전자를 위한 별도 평가 항목 등 최대 6개 항목으로 세분화했다. <4면에 계속>

/김승호 기자 bada@



metro

메트로 한줄뉴스



▲한 총리, '12·29 참사' 재수습 현장 방문...“진상 규명·추모 모두 쟁길 것” /사진 뉴시스
▲정청래 “김민석, 지난 1년간 부동산 공급 위해 땀 흘려...답답할 노릇”

▲국힘, '당협 물갈이' 의견 수렴기로...“지선 활동 미흡한 당협 교체”
▲마포대교 남단서 신호위반·중앙선침범...폭주족 20명 검거

▲“코인 선물 투자, 더 넣으면 복구해준다”...경찰, 유사투자자문사 압수수색
▲‘태움’ 뿌리 뽑는다...복지부·노동부 ‘안전한 병원 만들기’

美 해군함정 건조 난항… K-조선, 전투함 신조시장 진출 기대

美 해군, 구축함·보급유조선 RFI
HD현대·한화오션 함정 역량 부각
2035년까지 전투함 수요 확대
한화, 오스탈USA 인수로 현지화
해외 건조 제한·의회 승인이 변수

미국 해군이 대형 수상전투함을 중심으로 함대 증강에 나서면서 한국 조선업계의 역할이 국내에서 이뤄져 온 유지·보수·정비(MRO)를 넘어 미 해군 신조 전투함 건조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13일 미 의회에산국(CBO) 홈페이지에 따르면 미 해군의 대형 수상전투함 연평균 구매 예산은 지난해 계획(약 110억 달러) 대비 내년 계획(190억 달러)에서 3분의 2 이상 증가한다. 오는 2035년까지 건조해야 할 대형 수상전투함의 톤수도 두 배 이상 늘어나며, 핵추진 전함 15척 건조에는 내년부터 2056년까지 약 2750억 달러가 투입될 전망이다.

이 같은 대규모 전력 증강 계획에도 미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2024년 말 해군에 인도 예정인 차세대 호위함(울산급 Batch-III) 선도함 '충남함'의 시운전 모습.

국 조선업계는 극심한 생산 병목을 겪고 있다. 미 정부회계감사원(GAO)에 따르면 민간조선소들은 콜럼비아급·버지니아급 잠수함의 연간 건조 목표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30억달러 이상이 투입된 콘스텔레이션급 호위함은 계약된 6척 중

4척의 건조가 중단되는 등 수상함 사업에서도 차질이 이어지고 있다.

건조 난항이 이어지자 미 해군은 최근 한국 조선사에 구축함급 수상전투함과 중형급 함대 보급용 유조선 건조 관련 정보 요청서(RFI)를 발송했다. HD현대중공업

과 한화오션은 두 RFI에 모두 참여했고, 삼성중공업은 보급유조선 RFI에 응했다.

국내 대형 조선사들은 검증된 함정 건조 역량을 갖추고 있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미 알레이버크급과 동일한 이시스 전투체계를 탑재한 8500톤급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과 충무공이순신급 구축함, 페루·필리핀 등 해외 수출용 수상함을 건조·인도한 경험이 있다.

프랑스 해군 전문매체 네이벌뉴스는 이번 RFI가 실제 발주로 이어질 경우 1922년 이후 104년 만에 처음으로 해외에서 설계·건조된 전투함이 미 해군에 취역하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마지막 영국제 뉴올리언스급 방호순양함 퇴역 이후 미 해군 전투함은 모두 미국에서 설계·건조돼 왔다.

한국 조선업계의 미국 현지 진출도 확대되고 있다. 한화그룹은 최근 미국 군함 조선사 오스탈USA를 최대 12억달러에 인수하겠다고 제안했다. 오스탈USA는 버지니아급·콜럼비아급 핵잠수함 모듈을

제작하고 있으며, 연간 콜럼비아급 1척과 버지니아급 2척 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전용 모듈 공장도 건설 중이다.

변수는 법적 규제다. 미국은 바이른스-톨레프스 수정안'을 통해 미 해군 함정의 해외 건조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실제 수주를 위해서는 의회의 국가안보 면제 조항 적용과 예산 승인, 자국 조선업계의 반발 극복이 필수적이다.

미국 내에서도 제도 개선 움직임은 시작됐다. 동맹국 조선소에서 미 해군 함정을 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지난해 상·하원에 발의되어 소관 군사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는 "미국이 한국 조선업계에 SOS를 보낸 상황"이라며 "최근 보낸 RFI는 법적·제도적 규제를 넘어 실질적인 협력을 구체화하려는 출발점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dhaledhale@metroseoul.co.kr



metro

서울시 '미리내집' 128세대 공급… 31일부터 청약

신혼·신생아 가구 시세 60~70% 적용
출산 땀 장기전세 우선이주권 부여
자녀 있으면 최장 14년 거주 가능

서울시가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 등을 대상으로 시세의 60~70% 수준 임대료가 적용되는 '일반주택형 미리내집' 128세대를 공급한다. 청약 접수는 오는 31일부터 시작하며, 입주는 내년 2월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서울시는 14일부터 2026년 제1차 '일반주택형 미리내집'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일반주택형 미리내집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매입한 주택을 신혼부부 등에 게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이다. 입주자가 거주 중 자녀를 출산하면 10년 거주 후 장기전세주택으로 우선 이주할 수 있는 신청권을 부여한다.

이번 공급 물량은 신규 53세대와 잔여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월 4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 열린 주택정책소통관 집들이 및 소통의 날 행사에서 미리내집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 /뉴시스

공가 75세대 등 총 128세대다.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다가구주택 등이 공급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 대상은 무주택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혼인 가구, 신생아 가구, 한부모 가족 등이다. 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맞벌이 가구는 200% 이

하여야 한다. 총자산가액은 3억6200만원 이하하여야 한다.

임대료는 수급자 계층 또는 소득 80% 이하 가구의 경우 시중 시세의 60%, 소득 130% 이하 또는 맞벌이 200% 이하 가구는 시세의 70% 수준이다.

입주 자격을 유지하면 기본적으로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자녀가 있는 가

구는 최장 14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매 입임대주택 거주 중 2024년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인터넷 청약은 SH를 통해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진행된다. 이후 서류심사와 당첨자 발표를 거쳐 2027년 2월부터 순차적으로 입주한다.

서울시는 청약 전 주택 내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오는 28~29일 도봉구 빌드아르페아파트에서 '구경하는 집'을 운영한다.

빌드아르페아파트는 총 30세대 규모로, 평균 전용면적은 61.46㎡이며 방 3개 구조다. 공개 시간은 이틀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2층 주민공동시설과 902호, 904호를 둘러볼 수 있다. 현장에서는 사업 안내 리플릿 배부와 상담도 진행된다. /이현진 기자 lhi@



metro

7월 수출 역대 최대 친환경차가 실적 이끌어

지난 7월 한국 자동차 수출이 역대 7월 중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수출과 내수, 생산이 동시에 늘어나는 '트리플 성장'을 이뤄냈다. 친환경차 수출 호조와 조업일수 증가가 실적 상승을 이끌었다. 다만 최근 현대자동차 노조의 파업 등으로 대규모 생산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상반기부터 이어온 호조세가 하반기에도 유지될지는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1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7월 자동차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7.0% 증가한 62억 4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종전 7월 최고치인 59억 달러(2023년)를 넘어선 역대 최대 실적이다. 같은 기간 내수 판매량(13만 9000대)과 생산량(35만 2000대)도 각각 0.5%, 11.3% 늘었다.

수출을 이끈 주역은 친환경차였다. 친환경차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25.5% 증가한 25억 9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metro

첨단산업 '현장 규제' 걷어낸다… 4.2조 투자 조기 집행

용인 반도체 증설 별도 건축허가 추진
구미·포항 배터리 재활용 입주 허용
RE100 특례구역 지정 한도 50% 확대

반도체와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산업 관련한 규제가 완화된다. 산업단지에 추가로 들어서는 증설 건축물의 경우, 기존 건축허가와 별도로 허가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신산업·RE(재생에너지)100의 활성화를 위해, 모든 업종의 입주가 가능한 '제한업종 계획구역' 지정 한도가 현행 30%에서 50%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 같은 규제 완화에 총 4조 2000억 원 상당의 투자 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 용인반도체클러스터 공장 증설 지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정부는 13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겸 경제관계장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기업 수요가 있는 현장대기 프로젝트 중심으로 규제를 푼다는 방침이다. 이에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1차 지원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반도체 부문에서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공장 증설을 지원한다. 그간 현행 건축법상 신규 건축물을 증설할 때마다 기존 건축허가를 변경해야 하는 탓에 증설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산업단지는 증설 건축물에 기존 건축허가와 분리해 별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별도 허가가 가능해지면 약 2조 5000억 원 규모의 투자가 조기에 이뤄질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또 반도체 기업이 실증 지원법인인 '트

라티랩'에 출연하는 재산에는 증여세를 비교세한다. 이로써 8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차전지 분야에서는 경북 구미·포항국가산업단지의 입주 대상 업종에 이차전지 리사이클링(자원 재생) 업종을 추가한다.

그간 해당 산단에는 이차전지 연관 제조업만 입주할 수 있어, 폐기물 관련 업종으로 분류된 리사이클링 기업의 입주가 제한돼 왔다. 이에 리사이클링을 배터리 핵심 제조공정으로 보고 입주 문턱을 낮춘다. 신규투자 발생 기대 규모는 약 1000억 원이다.

바이오 부문에서는 충북 오창과학산업단지의 제조시설 증설을 지원한다. 기존 제조시설과 연결된 공장을 추가로 지을 수 있도록 청주시 소유 녹지를 산업용지로 변경해, 5300억 원 상당의 신규 투자를 지원하게 된다.



충북 청주 오창 소재 다목적방사광가속기 조감도. /뉴시스

전북 익산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는 분양률이 낮은 음료제조업 부지를 기업 수요가 높은 식품제조업 부지로 변경한다.

첨단·신산업 분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신산업·RE100(재생에너지 100%) 등에 필요한 경우, 모든 업종의 입주가 가능한 '제한업종 계획구역' 지정 한도를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하고, 업종 특례지구 요건도 수위를 낮춘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metro

>> 1면 '빌게이즈 오늘 방한...'서 계속

SMR 특별법 내달 시행

국내 기업과 테라파워 간 협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도 강화된다. 오는 9월 11일 시행되는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는 정부가 5년마다 SMR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구개발과 실증, 전문인력 양성, 산업 기반 조성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업계 한 관계자는 "테라파워와 뉴스케일 파워 등 해외 SMR 개발사들이 잇달아 한국을 찾은 배경에는 원자로 제작에 필요한 공급망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다"며 "원자로 제작에는 수백개 업체가 참여하고 일부 기자재는 수년 전부터 발주해야 하는 만큼 제조시설과 협력업체 기반을 갖춘 국내 기업의 역할이 중요해 이번 방안을 계기로 테라파워와의 협력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공공·민간 신속공급… 신규택지는 염창공원·남양주·광주

李 정부 세 번째 부동산 대책

공공택지 착공기간 절반 수준으로 3기 신도시·서리풀 1~2년 앞당겨 1·29 발표 부지 2030년까지 착공 민간부문, 2028년까지 착공하면 세제·금융·규제 모두 인센티브 신규지수도 3~4년 내 착공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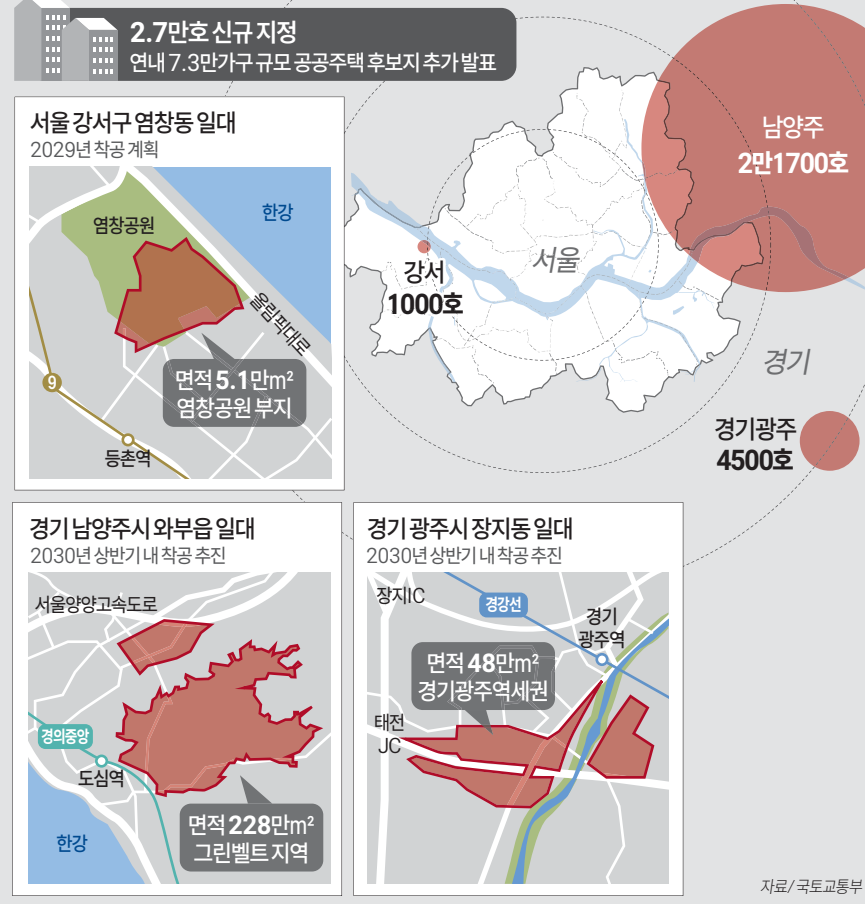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공급대책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닥치고 착공’이다. 정책 발표 이후 실제 공급까지의 시차로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지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특히 앞선 두 번의 공급방안이 공공 주도의 공급만 강조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공급도 지원하는 것으로 분위가 자체도 바뀌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하며 “이번 공급 방안은 수년간 누적되어 온 민간 공급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규제 완화, 금융, 세제를 망라한 전향적인 개선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기존 대책과 차별화된다”며 “조기 착공에 대한 과격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단기 공급 확대에 총력을 기울여 전월세 시장의 불안을 조기에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작년 9·7 대책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총 135만호 착공을 목표로 세웠으며, 올해 들어서는 용산국제업무지구·캠프킴을 비롯한 서울수도권

8·13 부동산 대책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



도심에 6만호를 추가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1·29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 조기 착공·우선 착공·모든 부지 착공

공공택지는 착공까지 기간을 기존 대비 절반 수준으로 앞당긴다. 앞으로 발표할 신규지구는 37개월 내 착공을, 3기 신도시·서리풀 등 기존 지구는 단계에 따라 1~2년 이상 앞당겨 8만9000호를 조기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1·29 대책을 통해 발표한 모든 부지는 2030년까지 착공한다. 강서군 부지 등 내년 3000호 착공을 시작으로 공급을 본격화하며, 태릉CC와 과천 경마장·방첩사 등 주요 사업지들은 기존시설 이전과 착공 시기를 앞당겨 2029년에 착공한다. 용산 국제업무지구 등은 더 앞당겨 2028년 말 주택 착공을 추진한다.

민간에 매각한 수도권 공공택지는

2027년 안에 착공하면 미분양 매입 확약을 인센티브로 준다. 착공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LH가 택지를 회수해 직접 사업을 추진한다.

양지영 신한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의 공급시계를 당겨 신규 후보지를 추가 지정하는 것보다 시장 체감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착공 이후 실제 입주까지 다시 수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기 전월세시장 안정 효과는 제한적이며, 보상이나 공사비 등 착공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고민은 더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 민간 공급 생태계 복원

수도권 주택공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 부문의 공급 회복을 위해서는 규제를 푼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조기 착공하는 곳에 세제·금융·규제 모두 인센티브를 준다. 오는 2028년까지 착공하면 공공기여하는 임대주택의 인수가격을 높여주고, 5년 내 사업인가를 신청하면 공원·녹지 기부채납 기준을 완화한다. 총량관리에 막혔던 이주비 대출 등은 별도로 관리하고, 담보대출비용(LTV)도 수요자에게 유리하게 바뀐다.

사업추진을 막던 현장규제는 일괄 처리한다. 재개발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율은 기존 75%에서 재건축 수준인 70%로 낮추고, 일반경쟁 입찰 결과 시공사가 한 곳만 응찰한 경우 재입찰 절차를 간소화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 내에 확정판결 효력을 갖춘 정비사업 전문중재기구를 신설해

공사비 분쟁 등을 해소토록 할 방침이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재개발 사업 처리기한제 등도 도입한다.

소규모 정비사업은 2030년까지 4200호를 추가 착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주비 부족으로 착공 지연이 발생하지 않게 기금 지원규모와 대상을 늘리고, 착공 가능한 사업장부터 지원한다.

상대적으로 사업속도가 빠른 비아파트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세대·다가구의 건축면적 상향, 층수 제한과 일조규제 완화, 기금대출 확대 등 공급여건을 개선한다.

◆ 신규 택지에 군사시설, 유류지까지 ‘영끌’

신규 공공주택지구 역시 최단기 착공모델을 적용해 3~4년 내에 착공한다.

서울에서는 민간 개발사업이 취소된 이후 20년간 방치된 강서 염창공원 부지를 활용해 1000호를 공급한다. 남양주에서는 고려대 덕소농장이 위치한 그린벨트 지역에 2만1700호, 경기 광주에서는 장지동 일원에 4500호를 짓는다. 추가 후보지 발표를 앞두고 그린벨트는 서울 전역과 인접 수도권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에 따라 고도제한이 완화된 3기 신도시 고양창릉 등 기존 사업지구에서도 약 3700호 규모를 추가 공급할 수 있게됐다.

이밖에 학교 용지와 노후청사 부지를 활용해서는 공공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청년, 비아파트 주택 구매 시 LTV 80%… ‘결혼 페널티’ 해소

대출 총량 2배 상향

가계부채 관리 목표 1.5% → 3%
정부 ‘청년주거지원 3종세트’ 선포
보급자리론 부부합산 소득 기준 완화

앞으로 청년세대가 4억원 이하의 비아파트 주택을 살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용(LTV)이 80%까지 늘어난다. 또 혼인신고를 하면 정책대출에 불이익이 생기는 ‘결혼 페널티’를 해소한다. 정부가 빠르게 증가한 주택금융 수요 대응을 위해 올해 가계부채 총량 규제 목표치를 당초의 1.5%에서 3%까지 상향한다. 이와 함께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수요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되, 자녀 취학·전근 등 예외 인정 기준은 완화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 가계부채 관리 목표 1.5%→3%

이번 종합대책의 핵심은 전년 대비 1.5%로 설정됐던 가계부채 관리 목표치를 3%까지 상향하는 내용이다. 투기적 성격의 주택금융 수요 억제를 위한 기존 관리 기준은 유지하되, 주택공급 확대 및 실수요자 지원 필요성, 최근 가파르게 증가한 금융 수요 증가 등을 고려해 가계대출 공급을 늘린다.

이번 가계대출 관리 기준 완화는 대출 유형 구분 없이 금융기관의 대출 총량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뉴시스

직접 적용되며, 은행 뿐만 아니라 상호금융권·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도 적용된다. 단, 지난해 가계부채 관리목표 초과분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부여됐던 대출 총량의 페널티는 유지한다.

정부는 상반기 88% 수준이었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오는 2030년까지 80%로 낮춘다는 중·장기 목표는 유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수출 증가와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올해 경제 성장률이 평년 대비 높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중장기 관점에서 가계부채를 GDP 대비 80%수준으로 하향안정화 한다는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밝혔다.

◆ 민간 주거공급 활성화

정부는 민간 부문의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보증 확대와 임대사업자의 LTV 기준 완화 등 금융·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고금리 기조의 장기화와 사업성 악화로 위축됐던 일반주택 공급 생태계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주택공급을 활성화해 조기 공급을 추진한다는 목표다.

먼저, 정부는 서울·경기 지역 내에서 오는 2027년까지 착공에 들어가는 사업장에 1%포인트(p), 2028년까지 착공에 들어가는 사업장에는 0.5%p의 PF 대출 이자 인하 혜택을 적용한다. 또한 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는 공공 PF 보증 수수료를 30% 인하하고 조기 착공 시 10%p를 추가 인하해 신속한 착공을 유도한다. 캠코의 PF 정상화 지원펀드, 은행·보험권의 신디케

이트론 등 업권별 정상화펀드를 통해 PF 사업장의 정상화도 적극 지원한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매매 및 임대사업자의 주담대 허용 기준도 완화한다. 앞으로는 신축 비(非)아파트 매입과 멸실 예정 주택 매입 시에도 주담대 이용이 가능해진다.

◆ ‘청년주거지원 3종세트’ 출시

정부는 청년 실수요자의 주택금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청년주거지원 3종세트’를 출시한다. 실수요층 비중이 큰 청년 세대에는 ‘핀셋지원’을 제공한다는 목표다.

먼저, 월세 수준의 원리금 상환을 통해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미래보증리론’이 출시된다. 4억원 이하의 비아파트 주택 구매 시 LTV 80% 수준에서 대출

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상품으로, 지방·저소득·신생아 등에는 우대금리 요건을 추가 적용한다. 또한 상품 이용 시에도 주담대의 생애최초 LTV 우대 혜택을 유지해 ‘징검다리’ 역할을 하도록 설계했다.

반전세(전세+월세) 거주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결합보증’ 상품도 출시한다. 전세대출과 월세대출을 결합해 보증하는 상품으로, 마이너스통장(한도대출) 형태로 출시돼 하나의 대출로 목돈 및 월 자금 수요에 대응하고, 불필요한 이자 지출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했다.

전세 거주 청년에는 현행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보증비율 100%)의 지원대상을 늘리고, 대출 한도도 확대한다. 기존 34세 이하였던 연령 기준을 39세까지 완화하고, 부부합산 연 7000만원이었던 소득 기준은 부부 중 1명이라도 소득이 연 7000만원 이하라면 상품 이용이 가능하도록 완화한다. 기존 2억원 수준이던 대출한도는 신혼부부나 유자녀 가구의 경우 3억원까지 늘린다.

‘결혼 페널티’로 지목받았던 주택금융 공사 보급자리론의 ‘부부합산 소득 기준’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혼인신고 7년 이내의 부부라면 부부합산 소득이 8500만원 이하일 때 상품 이용이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부부합산 소득이 8500만원 이하이거나 부부중 한명이라도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라면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안승진 기자 asj1231@



“동네마트인데 살려야죠”… 치킨 동나고 계산대 줄 늘어섰다

Q 르포 | 다시 문 연 홈플러스, 재개장 첫날 가보니

전국 67개 매장 영업 정상화 시동
비어있던 매대, 신선식품 등 채워져
일부 층은 여전히 영업 중단 상태

“일부러 왔어요. 우리 동네 마트인데 살
려야지.”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에서 만난
50대 고객 김모씨는 상품이 가득 담긴 카
트를 가리키며 이같이 말했다. 카트에는
가공식품과 냉동식품, 우유, 초밥 등이 담
겨 있었다. 김씨는 재개장 기념으로 할인
판매하는 당당후라이드치킨을 구매하려
했지만 “오전 중 준비된 물량이 모두 소진
됐다”는 안내를 받았다. 그는 “이처럼
홈플러스가 부족한 모습을 보니 안심된
다”고 말했다.

홈플러스가 13일 전국 67개 매장의 문
을 정식으로 열고 영업 정상화에 나섰다.
이 가운데 59개점에서는 온라인 영업도
재개했다. 지난 7일 임시 개장에 들어간
뒤 매장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상품 구성
등을 보완해 정식 재개장에 나선 것이다.
이달 말까지 육류와 수산물, 과일을 비롯
해 과자·음료·패키지 베이커리 등 주요 먹거
리를 대상으로 할인 행사도 진행한다.

재개장 첫날 매장에는 장을 보러 나온
고객들이 몰리면서 계산대 앞에 긴 줄이
이어졌다. 임시 개장 당시 곳곳이 비어 있
던 채소·과일 등 신선식품 매대에는 상품
이 다시 들어왔고, 가공식품 매대와 냉
장·냉동 진열대에도 상품이 빠르게 진열
됐다.

정오 무렵에는 일부 상품의 준비된 물
량이 모두 소진되면서 직원들이 빈 매대
를 다시 채우느라 분주하게 움직였다. 특
히 일부 행사 상품은 오전 개점 직후 준비
물량이 동났다.

30대 고객 장은영씨는 “임시 개장 첫날
왔을 때는 매대가 꽤 비어 있었다”며 “오
늘은 매대가 채워진 것을 보니 안심이 된
다”고 말했다.

홈플러스의 영업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
었던 입점 업체들도 모처럼 활기를 되찾
았다. 빵집을 비롯해 의류 매장과 안경원
등에도 고객이 몰렸고, 다이소 등 일부 매
장은 쇼핑객들로 통로가 빠르게 들어찰
 정도로 붐볐다.

입점 업체를 운영하는 이모씨는 “이렇
게까지 손님이 몰릴 줄은 생각하지 못했
다”며 “임시 휴업 때는 이제 다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손님이 찾아오는 것을
보니 희망이 생긴다”고 말했다.

다만 매장 곳곳에는 아직 영업을 완전
히 정상화되지 않은 흔적도 남아 있었다.
일부 매대는 상품 종류가 충분하지 않아
동일한 상품을 여러 칸에 걸쳐 진열했고,
상당수 매대의 하단은 상품이 채워지지
않은 채 비어 있었다. 가전·완구 등을 판
매하던 다른 층은 매대가 완전히 비워진
채 영업을 중단한 상태였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13일부터 전 매장
임시 휴업에 들어갔다. 이번 영업 재개는
20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을
확보하고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취소되면서 가능해졌다.



13일 재개장한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의 운영 중인 입점업체 모습.

홈플러스는 향후 복층 매장을 약 1000
평 규모의 단층 매장으로 전환하는 등 영
업면적을 효율화하고 식품과 생필품, 자
체브랜드(PB) 상품을 중심으로 상품 구성
을 재편할 계획이다.

매장 문을 다시 여는 데는 성공했지만
홈플러스의 회생 여부를 가를 고비는 남
아 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는 오는 9
월 2일 오후 3시 홈플러스 관계인집회를
열 예정이다. 홈플러스는 이에 앞서 12일
법원에 2차 수정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관계인집회는 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인이 회생계획안을 심리
하고 가결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다. 홈플
러스는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인 9월 4일
까지 필요한 채권자 등의 동의를 확보해
야 한다.

결국 정식 재개장은 회생을 위한 첫 관



홈플러스의 비어있는 냉장 매대를 동일한 상품들로 채운 모습.

/김서현 기자

문에 불과하다. 홈플러스가 채권자들의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영업 재개
이후 안정적인 매출과 현금 창출 능력을
보여주면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

다 높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
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metro

정치권·노동계 “홈플러스 살려야 민생 산다”

여야 의원들 장보기 캠페인
국민들의 장보기 동참 당부

홈플러스가 다음달 4일 법원의 회생계
획안 가결 시한을 앞두고 재개장한 가운
데, 홈플러스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염원
하는 국회의원들이 직접 장을 보며 희망
을 보였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한정에 정책위의장, 민병덕
을지로위원장, 유동수 MBK홈플러스 TF
위원장, 진성준·김남근·박희승·문금주·최
기상 민주당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
표, 차규근·정춘생·백선희 조국혁신당 의
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김중훈 진보
당 대표, 진교훈 강서구청장, 조주연 홈플
러스 대표이사, 박석운 홈플러스 살리기
공대위 상임대표, 안수용 마트노조 홈플
러스 지부장, 김병국 홈플러스 입점주협
의회 대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은
13일 홈플러스 공식 재개장에 맞춰 본사
가 있는 강서점을 찾아 ‘우리 동네 홈플러
스, 우리가 살려요’ 장보기 캠페인에 참석
했다.

홈플러스 지난해 3월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개시했고, 다음달 4일 법
원에서 회생계획안을 가결하지 않으면 청
산 절차를 밟게 된다.

홈플러스는 최대주주 MBK파트너스와
김병주 MBK 회장이 연대보증 한도를
2000억원으로 상향하고 최대 채권자인 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 등이 13일 오전 서
울 강서구 홈플러스 강서점에서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한 장보기 캠페인을 하고 있다. /뉴스시

리츠금융그룹이 동일한 규모의 긴급운영
자금(DIP) 지원을 결정하면서, 전국 67개
매장의 문을 다시 열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국민에게 홈플러스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장 보기에 동참
할 것을 요청하며, 사태를 일으킨 사모펀
드에 합당한 책임을 따져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병도 직무대행은 인사말에서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홈플러스를 찾아주고 많
이 장보기를 했으면 좋겠다”며 “희망을 나
누고 홈플러스와 관계된 모든 분들에게
희망을 나누는 장보기에 국민께서 많이
동참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린
다”고 했다.

민병덕 위원장은 “홈플러스(+)가 홈+
이너스(-)가 된 지 15개월이 됐다. 이제
30만 민생이 걸려있다. 국민께서 홈플러
스 살리기에 적극 나서달라”며 “마트가 잘
돼야 채권단 집회를 잘 넘어갈 수 있고,
좋은 M&A(인수합병)을 할 수 있기 때문
에 시간이 많지 않다. 홈플러스 30만 민생
을 살린다는 마음으로 국민께서 오늘 저
녁 밥상을 차릴 때 홈플러스를 이용해달
라”고 당부했다.

김남근 의원은 “MBK와 홈플러스 경영
진은 법원의 청산 결정 이후 손 털고 나가
겠다는 생각을 하지말라. 정부도 홈플러
스 청산 후 고용 지원하겠다는 생각을 하
지 말라”며 “국회는 홈플러스 살리기에 집



차규근·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과 박석운 홈
플러스 살리기 공대위 상임대표가 13일 재개
장한 홈플러스 강서점에서 홈플러스 전용 우
유를 들고 사진을 찍고 있다. /박태홍 기자

중하겠다. 9월 법원이 홈플러스를 살리는
결정을 할 때까지 홈플러스가 정상화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사태를 여기
까지 끌고 오신 분들의 책임을 면제하자고
이곳에 온 것이 아니다. 분명 책임을 물어
야 한다. 그래서 우리 홈플러스 노동자와
입점업체를 ‘돈줄’ 내주시고, 책임있는 사
람은 ‘흔줄’ 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발언을 마친 의원들은 개
별 혹은 2인1조로 직접 카트
를 끌며 장을 봤다.

/박태홍 기자 pth7285@



metro

>> 1면 ‘모두의 창업’서 계속

창업활동자금 활용처 PG 업종까지 확대

도전자의 초기 도전 활동을 더욱 폭넓
게 지원하기 위해 창업활동자금 활용처를
온라인 결제대행(PG) 업종까지 확대한
다. AI 솔루션 품질 제고를 위해 AI·과학
기술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약 50개 내
외 기업을 엄선해 기업당 최대 3개 솔루션
을 제공한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1차 모두의
창업을 통해 확인된 6만여 명의 뜨거운 도
전은 우리 사회에 창업에 대한 새로운 가
능성을 보여줬다”며 “2차 모두의 창업에
서는 더 많은 국민에게 도전의 기회를 열
고 재도전과 다양한 분야의 창업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도전 이후에도 창업생태
계 안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
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기부는 1차에서의 정보 유출
을 반면교사로 삼아 2차부터는 플랫폼 보
안과 운영 안정성을 더욱 강화하기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외부 전문가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플랫폼 보안성을 높이고 개인정보 관리체
계를 개선한다. 지역별 보육기관을 관리·
감독하는 지역 허브기관을 지정하고 창업
진흥원과 지역 허브기관 간 상시 소통체
계도 구축한다. 외부 전문가와의 상시
보안점검 체계를 구축한다.

2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10월에 1
만명의 혁신 창업가 윤곽이 드러난다.

/김승호 기자 bada@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퇴직연금 DB, DC, IRP 합산 적립금



금융권 전체 1위 (은행, 증권, 보험)

*2026년 1분기,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기준

**“1등의 권리
한 번 받아보실래요?”**

우리국민의 **하나된 선택**
퇴직연금전문 신한은행

퇴직연금
고객센터 | **1577-4114**

※-(DC, IRP)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1억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 (DB)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개인형IRP의 수수료는 후취 연 0% ~ 0.45% 입니다. (수수료에 대한 상세 내용은 운용/자산관리 계약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중도해지 수수료는 없습니다. 단,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 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시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과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세율로 과세되는 등 세제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중도 인출은 근로자 퇴직급여법상 퇴직급여 특별중도 인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당사는 해당 퇴직연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①항에 따라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계약서를 참조하시거나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광고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 26-01741호 (2026.04.15 ~ 2027.04.14). 준법감시인 사전심사필 제 2026-11660-1호 (2026.04.15 ~ 2027.04.14)

자산관리 전문은행 **신한은행**

李 “공급 절벽 메워라”… 인허가 단축·택지 확보 ‘총력전’

“부동산 거품 방지, 장기적 경기 침체 필요할 경우 법·제도까지 손질”
세제·금융 정책의 조화도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2022년부터 지금까지 (부동산) 공급 절벽이다. 이를 메우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주택 인허가 절차 단축, 택지 확보 등 부동산 공급 총력전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제43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택지도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다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확보해 공급에 나서야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은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부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한민국의 핵심 문제”라며 “사회적 지원이 장기간 부동산에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켰다”고 했다. 특히 부동산 거품을 더 방지할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며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 어떤 특정 국가처럼 소위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이런 현상이 우리 앞에 도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또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시한폭탄 같은 부동산 문제 해결에 가능한 수단과 역량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며 “사실상 전 국민이 부동산과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만큼, 시장 상황과 국민의 눈높이를 정교하게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바탕으로 공급, 세제, 금융 정책 전반을 치밀하게 다듬어서, 시

장을 정상화하고, 주거 안정과 주거 사다리의 체계적인 구축을 우직하게 추진해야겠다”며 “특히 파격적인 속도감 있는 공급, 또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세 체계, 세밀하고 두터운 금융 정책의 유기적인 조화가 무엇보다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급 정책이 지금 특히 문제가 되고 있다. 인허가도 매우 축소됐고 착공도 매우 많이 줄어들어서 불가피하게 일종의 공급 절벽이 발생했다”며 “공급 정책의 경우에는 현실적인 제약 요소도 많고, 소요 기간도 길어서 더욱 특별한 각오를 가지고 전방위적인 공급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향후 국민의 의견을 들어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 발표 후에도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서 정책의 완성도를 한층 더 높여야 한다”며 “최선을 다해서 정책 안을 만들되, 그 안을 국민들께서 또는 정치권에 제시하고 이런저런 좋은 제안과 수정안들이 제시되면 그걸 합리적으로 검토하고, 또 투명하게 토론하고 수렴해서

더 나은 완벽한 정책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애초에 나온 안이 바뀌었다거나 합리적인 안을 수용해서 수정했다고 해서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고 한다든지 오라카락이라고 표현하거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안됐으면 좋겠다”며 “누더기를 만들었다는 식의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에 굳이 너무 구애되지 말고 과감하게 국민들 또는 전문가들, 야당, 정치권의 의견을 수렴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특히 최근 제도적 맹점으로 자주 거론되는 ‘결혼 페널티’를 언급하며 “이런 것도 각 영역에 있는 잘못된 점들을 다 찾아내서, 불공정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만들어주면 좋겠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보다 안정된 주거 환경을 누리고, 누구나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국힘, 당협위원장 대대적 교체… ‘당원 투표’로 쇄신

위원장 임기 자동 연장 관례 깨
사고·교체 권고·활동 미흡 당협

국민의힘이 ‘당협위원장 물갈이’에 당원 투표 등을 적용하는 문제를 두고 각 시도당위원장과 사무총장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최고위원회가 의견을 청취한 후 최종 방침을 정하면 본격적으로 당협위원장 교체 작업이 진행될 전망이다. 장동혁 대표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조직 정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장 대표 주재로 열린 바공개 최고 위원회의에서는 전날(12일)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가 보고한 당협위원장 교체 범위·방식을 논의한 뒤, 각 시도당위원장과 사무총장 의견 청취를 통해 다음 최고위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조강특위는 전날 회의에서 이달 말 임기가 만료되는 당협위원장을 재임명하지 않고 일괄 사퇴하도록 한 뒤, 당원 투

표 등을 통해 선출하는 방식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당협을 제외한 대부분의 당협위원장 임기를 자동 연장했던 관례를 깨고, 사실상 전체 당협을 사고당협으로 만들어 조직 정비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이는 장 대표의 의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장 대표는 전날 한 방송에서 “지금까지 제대로 싸우지 않았던 당협위원장은 이제는 교체할 때가 됐다”며 “그런 당협위원장이 또다시 총선에 출마하게 된다면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당협위원장 선출 방식에 대해서도 “당원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 반영하겠다”면서 당원 투표에 따라 새로 임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교체 폭을 두고는 “지금 20%가 싸우고 있는데, 80%가 싸우는 정당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 및 이재명 정부와의 싸움에 열중하지 않았던 분들, 놀다가

지방선거 공천에만 관심 있던 분들은 교체할 때가 됐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 ‘지방조직운영규정’ 제27조에는 당협위원장은 ▲전 당원 선거 ▲책임당원 선거 ▲당원협의회 운영 위원회에서 현 운영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선출 ▲기타 최고위원회의에서 정한 방식 등으로 선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즉 최고위원회의에서 당협위원장 선출 방식을 지정할 권한이 있으며, 당원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는 셈이다.

현재 국민의힘 사고당협은 총 32곳으로, 이 경우엔 조강특위가 즉시 보강 작업을 할 수 있다. 지난 당무감사에서 하위 평가를 받아 교체가 권고된 당협은 총 27곳으로, 6·3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를 거쳐 사고당협으로 지정될 경우 새 당협위원장을 선출하게 된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 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사고당협도 아니고 당무감사 하위권도 아니지만 지난 지방선거 때 활동이 미흡했다고 평가되는 당협이 있다”며 “후보자를 배출하지 못하거나 선거운동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당협은 당무감사를 통해 최고위가 사고당협으로 확정하면 조강특위(심사) 범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어 “당협위원장이 그냥 유임되는 결과거나 당원들에게 선출되는 절차로 하겠다고 최고위가 의결하면 전석히 사고당협이 된다”며 “32(사고당협)+27(교체권 당협)+α(플러스 알파)’에 대해 최고위가 결정해달라고 보고했고, 당헌·당규 절차대로 시도당위원장과 사무총장 청취 의견을 바탕으로 다음 최고위에서 논의하겠다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규상 현역 의원과 비현역 당협위원장을 구분해 선출·교체를 제한하는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현역 의원도 이번 당협 교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 나온다. 자유한국당 시절인 지난 2018년 조강특위는 현역 의원 21명의 당협위원장 자격을 박탈했다.

다만 전면 재선출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나왔다. 장동혁 대표는 오는 26일 취임 1주년을 맞이하는데, 당에서 본인과 각을 세우던 비당권파들을 밀어내기 위한 ‘당협위원장 물갈이’가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서예진 기자

이진숙 ‘5·18 재조명’ 포럼 강행… 민주당, ‘역사 왜곡’ 반발

5·18 왜곡 논란 제기된 발표자들
민주, 의원 제명 결의안 제출 예고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국회도서관 지하 대강당에서 뉴라이트 계열 단체와 함께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행사를 주최해 논란에 휩싸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청에서 이를 규탄하는 피켓 시위를 실시하고 이의원의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이진숙 의원실과 새역사국민운동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지하 대강당에서 ‘5·18 민주화 운동의 재조명’ 국회 공개 포럼을 주최했다. 행사 목적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자유민주주의 관점의 첫 학술적 검토’이며 주제는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재조명’이다. 포럼에서 식민지근대화론을 주장한 이영

훈 교수가 광주정신, 그 역사적 실체는 무엇인가’를 주제로 발표하며, 주동식 호남대 안포럼 공동대표는 ‘5·18이 87체제 오염과 타락의 주범이다’를 주제로 발표한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 로텐더 홀에서 민생입법 방해·5·18 역사 왜곡 국민의힘 규탄대회’를 열고 포럼을 주최한 이 의원과 이를 제지하지 못한 국민의힘을 강하게 규탄했다.

한병도 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를 5·18 민주화운동 폄훼의 장으로 전락시키려는 천박하고 저열한 시도를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며 “이진숙 의원이 오늘 국회 도서관에서 5·18을 재조명하겠다고 관련 행사를 주최한다. 공동 주최 단체인 새역사국민운동은 물론이고 행사에 참석하는 이영훈·김용삼·주동식 같은 사람들도 학술 연구라는 거창한

이름에 기대 5·18을 근본부터 폄훼해온 장본인들”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5·18은 복잡한 이야기가 아니다. 군사독재체력이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는 사건”이라며 “총에 맞고 같이 찢려 우리 부모님이, 형제들이, 친구들이 쓰러져 나간 사건이다. 진보, 보수를 떠나 일말의 인간성이라도 있다면 5·18을 폄훼하고 장난치면 안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직무대행은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이진숙 의원은 이제라도 행사를 취소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하라”라며 “민약 행사를 강행한다면 이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민주당은 즉각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겠다.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황정근 국회 도서관장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민생입법 방해, 5·18 역사 왜곡 국민의힘 규탄대회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다”고 했다.

이어 “국회 운영위원장으로서 황정근 관장이 5.18 정신을 훼손하는 이번 행사 개최를 묵인한 것 아닌지 반드시 따져 묻

겠다”면서 “아울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의장 대관 관련 규정도 더욱 엄격하게 정비하겠다”고 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Samsung
Financial Networks

삼성금융 **연금력**

삼성생명 IRP 수수료 ZERO

*단, 펀드보수 등 추가 발생 가능

시원하고 투명하게 **썩! 바뀐**
수수료 0원, 삼성생명 IRP

안전성, 전문성, 수익성에 수수료 ZERO까지!
퇴직연금도 IRP도 역시 삼성생명
조건, 금액에 따라 수수료를 내고 계신다면,
ZERO 수수료, 삼성생명 IRP로 썩! 바꾸세요!



* 운용·자산관리 수수료 무료 · 투자자는 퇴직연금에 대하여 삼성생명으로 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입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DC/IRP]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1억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 [실적배당형(펀드)상품]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 2026-07034호 (2026-07-27 ~ 2027-07-26)

보험을 넘어서는 보험
삼성생명

마일리지 카드 주간 인기순위 10개, 대한항공서 ‘씩씩이’

아시아나와 통합으로 관심 높아져
신용카드 플랫폼 카드고릴라
1위 ‘삼성카드&마일리지 플래티넘’
이용금액 1000원당 1마일리지 적립
2위 현대카드 ‘대한항공카드 300’

대한항공마일리지 적립카드가 인기를 끌고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으로 마일리지 활용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13일 국내 신용카드 플랫폼 카드고릴라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 마일리지 카드 인기 순위 상위 10개를 대한항공 마일리지 적립 카드가 모두 차지했다.

1위는 ‘삼성카드&마일리지 플래티넘(스카이패스)’ 카드다. 국내외 가맹점 이용 금액 1000원당 대한항공 1마일리지를 기본 적립해 준다. 전월 이용 금액, 적립 한도 조건은 따로 없다.

2위와 3위는 현대카드 대한항공상업자 전용표시(PLCC) 카드인 ‘대한항공카드



지난 12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활주로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기가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300’, ‘대한항공카드 더 퍼스트 에디션’로 집계됐다.

대한항공카드 300의 경우 국내 가맹점 이용 금액 1000원당 대한항공 1마일리지를 기본으로 적립해 준다. 추가 혜택으로는 대한항공 직판 항공권·해외 가맹점·국내 특급호텔 등 업종 이용 시 3마일리지

적립 등이 마련됐다. 단, 전월 이용 금액 50만원 이상인 고객이 대상이다.

대한항공카드 더 퍼스트 에디션2는 대한항공카드 300과 혜택 조건은 같으나 추가 혜택에서 차이가 있다. 특히, 대한항공 직판 항공권 구매 시 1000원당 5마일리지를 적립해 준다.

나머지 순위에서는 ‘신한카드 에어원’, 삼성카드의 ‘더 1’, 우리카드 ‘카드의 정석 에브리 마일 스카이패스’, 현대카드 ‘대한항공카드 120’, 현대카드 ‘대한항공카드 060’, 비씨비로 에어 맥스 카드’, IBK기업은행 ‘아이 마일리지(대한항공)’ 등이 이름을 올렸다.

대부분의 카드가 국내외 가맹점 이용 금액 1000원당 1마일리지 혜택을 기본으로 지급한다.

대한항공 마일리지 특화 신용카드들이 주목받는 배경으로는 ‘통합 대한항공’ 출범이 자리하고 있다. 통합 대한항공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합병을 통해 오는 12월 출범하는 통합 항공사다.

실제 아시아나항공은 최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대한항공과의 합병안을 가결했다.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에 흡수 합병되는 것을 공식 승인한 것이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 2020년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처음으로 공식화한 이후 양사 통합 작업을 거쳐 왔다.

카드사들도 이미 통합 대한항공 출범 기조에 따라 대한항공과 제휴를 맺고 관련 상품을 확대해 왔다.

대표적으로 롯데카드는 지난달 ‘로카 코퍼레이트 제우스 스카이패스’, ‘고위드 스카이패스’ 등 대한항공 마일리지 적립 혜택을 담은 법인카드 2종을 새롭게 선보였다.

삼성카드도 대한항공과 전략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우수고객(VIP) 대상 제휴카드를 새롭게 출시한다. 삼성금융 통합 플랫폼인 ‘모니모’에 대한항공 주요 모바일 서비스도 함께 탑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으로 시장 지배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한항공 제휴카드가 확대되는 측면이 있다”며 “기존 아시아나마일리지는 어떻게 되는지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올해 서울서만 대부업 280곳 문 닫았다

시장 신규 진입장벽 높아진 영향
대부업 173곳, 대부중개업 107곳
시장 위축에 불법사금융 피해 우려

올해에만 서울에서 200개가 넘는 대부업·대부중개업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대부분은 사업 운영 기간이 2~3년 된 신규 사업장이다. 대부업 시장의 신규 진입 장벽이 높아지면서 서민금융 공급망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서울시 열린데이터광장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이날까지 총 280개의 대부업·대부중개업이 폐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부업은 총 173곳, 대부중개업은 107곳이 폐업했다.

자차구별로 살펴보면 강남구가 48곳으로 폐업장 수가 가장 많았다. 뒤이어 서초구(30곳), 송파구(29곳), 금천구(23곳), 강북구(19곳), 중구(16곳) 순으로 나타났다.

폐업장 대부분이 문을 연 지 얼마 되지 않은 신규 사업장이었다. 폐점한 곳의 96%(269곳)가 영업기간이 3년도 채 되지 않은 사업장이었으며, 그중에서도 2년을 채우지 못한 사업장은 63.9%(179곳)로 나타났다. 영업 일수가 1년도 채 되지 않

은 극초단기 폐업장은 27.5%(77곳)를 차지했다.

3년 미만 단기 폐업 비중은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연간 폐업한 대부업·대부중개업 사업장 수는 총 583곳으로, 그 중 3년 미만 단기 폐업장 수는 94.5%(551개)로 나타났다. 올해 8월까지 계산한 3년 미만 단기 폐업장 비중이 전년도 전체 비중을 웃돌고 있는 셈이다.

서울 외 지역에서도 대부업 시장은 위축되고 있다.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등록 대부업자 수는 331곳으로 작년 동기에 비해 142곳 줄어 들었다.

이는 대부업 시장 진입장벽이 높아진 데 따라서다. 앞서 지난해 7월에 금융당국은 대부업법을 개정하고 지자체 대부업자의 자기자본요건을 강화했다. 개인사업자의 자본금 기준을 기존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은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했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자자체에 등록하는 대부업은 개인회사가 많아 기본적으로 폐업이 잦다. 그럼에도 폐업을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지난해 통과된 대부업법 개정 때문일 것”이라며 “사업 갱신을 할 때 자기

자본 요건이 강화되니까 더 이상 그 요건을 맞출 수 없어 자체적으로 폐업해 버리는 곳이 많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영업 환경 악화도 거론된다. 대부업체가 대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에는 자금 조달 금리, 대손비용, 중개수수료 등이 포함된다. 대부업체는 대출금리에서 이 같은 비용을 빼 이익을 창출한다.

이 구조에서 기준금리가 인상하면 자금 조달 금리가 함께 오른다. 하반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하면 자금 조달 금리 비용은 현재보다 더 확대된다. 경기침체로 연체율까지 상승하면 대손비용 역시 함께 커질 수밖에 없다.

한편, 대부업 시장 위축이 불법사금융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자금 공급원이 막힌 저신용자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넘어가 불법사금융 시장이 커지면, 그만큼 피해 규모가 더 커질 수 있어서다.

업계 관계자는 “대부업의 금융 소외 문제가 심각해지면 불법사금융 피해도 증가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DB손보, 상반기 보험손익 7884억 17.6% ↑

당기손익 전년비 8% 성장 9796억

DB손해보험이 올해 상반기 9796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둬 전년 동기 대비 8.0% 성장했다. 2분기에는 장기보험 손해를 개선과 계리 가장 변경에 따른 손실계약 환입 효과가 맞물리면서 순이익이 50% 넘게 증가했다.

DB손해보험은 올해 상반기 매출액이 11조917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7% 증가했다고 13일 밝혔다. 영업이익은 1조4272억원으로 13.3%, 당기순이익은 9796억원으로 8.0% 늘었다.

상반기 보험손익은 788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6% 증가했다. 투자손익도 6382억원으로 8.4% 늘어 전체 실적을 뒷받쳤다.

2분기 실적 개선 폭은 상반기 누계보다 컸다. 2분기 당기순이익은 711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4.6% 증가했다. 매출액은 5조3134억원으로 3.7%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9639억원으로 57.4% 늘었다.

2분기 보험손익은 5618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09.9% 급증했다. 투자손익 역시 4021억원으로 16.7% 증가했다.

보험손익 개선은 장기보험이 이끌었다. 2분기 장기보험 손익은 510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8.6% 늘었다. 1분기와

비교해 장기보험 위험손해율이 개선된 데다 계리 가장 변경으로 과거 손실계약에서 환입이 발생한 영향이다. 상반기 누적 장기보험 손익은 7757억원으로 19.2% 증가했다.

자동차보험은 손해율 상승 여파가 이어졌다. 2분기 자동차보험 손익은 62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80.6% 감소했다. 상반기 누적 손익도 150억원으로 80.7% 줄었다. 다만 2분기 손해율은 1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고 전년 대비 상승 폭도 둔화했다.

일반보험은 안정적인 손해율 관리에 힘입어 2분기 451억원의 보험이익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다. 다만 1분기 대규모 손실의 영향으로 상반기 누적 손익은 24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김주형 기자

삼성화재, 상반기 순익 1조3723억… 10% ↑

보험손익 1조1145억 10.9% 상승
투자손익 7880억으로 22% 늘어
2분기 지배주주지분 순익 7380억

삼성화재가 장기일반보험 수익성 개선과 투자손익 확대에 힘입어 올해 상반기 1조3723억원의 지배주주지분 순이익을 거뒀다. 자동차보험도 1분기 적자를 딴고 2분기 흑자로 돌아서 본업 회복에 힘을 보탰다.

삼성화재는 13일 기업설명회를 열고 올해 상반기 연결 기준 세전이익이 1조8508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배주주지분 순이익은 1조372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2% 증가했다.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이 나란히 성장해 전체 실적을 끌어올렸다. 상반기 보험손익은 1조1145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0.9% 늘었고, 투자손익은 7880억원으로 22.0% 증가했다. 이에 따라 영업이익은 1

조9020억원으로 15.2% 확대됐다.

2분기 지배주주지분 순이익은 738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7%, 전분기 대비 16.2% 늘었다. 같은 기간 보험손익은 563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7.2% 증가했고, 투자손익도 20.0% 늘어난 4260억원을 기록했다.

보험 부문별로는 장기보험이 상반기 8804억원의 보험손익을 내 전년 동기 대비 5.6% 성장했다. 보장성보험 유지율과 손해율이 개선된 영향이다.

올해 6월 말 보험계약마진(CSM)은 14조5947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4271억원 증가했다. 다만 상반기 신계약 CSM은 1조242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6% 감소했다. 월납환산 신계약보험료가 19.5% 줄어든 영향이다. 수익성을 나타내는 신계약 CSM 환산배수는 12.8배에서 13.9배로 개선됐다.

/김주형 기자 gh471@



김윤해 한화 건설부문 안전환경경영실장이 퀴즈에 참여한 근로자들에게 온열질환 예방 물품을 전달하고 있다. /한화 건설부문

한화 건설부문, 온열질환 대응 공동 캠페인

롯데칠성과 음료차량 마련

한화 건설부문은 지난 12일 경기 고양시 원당1구역 주택재개발 공사현장에서 롯데칠성음료와 ‘온열질환 대응 공동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양사는 현장에 음료차량을 마련해 근로자에게 이온음료와 생수를 제공했다. 참여형 부스를 마련해 온열질환 예방 퀴즈를 진행하고 정답자에게 쿨토시와 쿨타월

등 안전용품도 전달했다.

김윤해 한화 건설부문 안전환경경영실장(CSO)은 현장을 둘러보며 고용노동부의 ‘폭염안전 5대 기본 수칙’인 물·그늘·휴식·보냉장구·응급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한화 건설부문과 롯데칠성음료는 지난해 4월 온열질환 예방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후 전국 건설현장에 이온음료 분발과 생수를 지원하고 있다. /성채리 수습기자 cr56@

삼성, AI 냉각시장 공략... 인도 생산확대·광주 신공장 추진

푸네 신규라인 연 6500대 양산
광주서 중앙공조·정밀냉각 제작
레노스 합작 통해 북미 유통망 확보
플렉트 인수 시너지로 경쟁력 강화
DX부문 차세대 성장축 HVAC 육성

삼성전자가 인도에 공조 생산라인을 준공하고 국내에서도 신공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가 늘면서 냉각 장비 수요가 커지자 지난해 인수한 플렉트그룹을 앞세워 사업 확대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12일(현지시간) 인도 마하라슈트라주 푸네에서 플렉트그룹 냉난방 공조(HVAC) 신규 생산라인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김철기 삼성전자 DA사업부장 부사장과 임성택 공조사업팀장 부사장, 데이비드 도니 플렉트그룹 최고경영자(CEO)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 6개월 만에 양산 체제

새 생산라인은 1만3826㎡ 규모로 이 가운데 1만2000㎡ 이상이 생산 공간이다. 올해 초 설비 구축에 들어가 6개월 만에 양산 체제를 갖췄으며 완전 가동 시 연간 6500대를 생산할 수 있다.



삼성전자가 12일(현지시간) 인도 마하라슈트라주 푸네에서 플렉트그룹 신규 생산라인 준공식을 개최했다. 왼쪽부터 데브라지 싱 플렉트그룹 아시아 영업총괄, 김철기 삼성전자 DA사업부장(부사장), 데이비드 도니 플렉트그룹 CEO, 임성택 삼성전자 DA사업부 HVAC사업팀장(부사장). /삼성전자

플렉트그룹에 따르면 이곳에서는 공기 조화기(AHU)와 컴퓨터룸 공기 처리 장치(CRAH) 등 데이터센터 냉각장비를 만든다. 냉각액을 순환시켜 서버를 직접 식히는 액체냉각 설비인 냉각수 분배장치(CDU)도 생산 품목에 포함됐다.

푸네는 인도 데이터센터와 산업 인프라가 빠르게 늘어나는 지역이다. Mumbai항구와 가까워 공급망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도 입지 선정에 고려됐다. 새 생산

라인은 기존 노이다 공장과 함께 인도와 아시아-태평양 시장 공급을 맡는다.

◆ 광주 신공장 추진

국내에서는 광주 HVAC 신공장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광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삼성전자 그린시티 3캠퍼스 유휴 부지에 별도 공장동을 세우는 방식으로 투자 규모는 2000억원대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이달 중 건축허가를 마치고 다음 달 착공식을 여는 방안을 전남광주통

합특별시와 협의하고 있다. 다만 삼성전자 관계자는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광주 공장에서는 국내 AI 데이터센터에 공급할 중앙공조와 정밀냉각 장비를 주로 생산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유럽 등 해외 공장에서 들어오던 물량 일부를 국내 생산으로 돌린다는 구상이다. 국가 AI컴퓨팅센터를 비롯한 대형 프로젝트 수요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시아에 이어 북미에서도 기반을 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2024년 미국 레노스와 합작법인 설립 계약을 체결하며 유통망을 확보했다. 지분은 삼성전자 50.1%, 레노스 49.9%다. 현지 생산시설 신축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부지와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 AI 공조 62조 시장 노린다

삼성전자가 공조 사업에 힘을 싣는 배경에는 시장 성장세가 있다. AI-데이터센터 공조 시장은 2030년까지 62조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도니 CEO도 에너지 효율 규제 강화와 AI-사물인터넷(IoT) 도입 확대를 성장 요인으로 꼽으며 히트펌프와 액체냉각 수요를 중심으로 2035년까지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삼성전자는 지난해 5월 영국계 사모펀드 트라이튼이 보유한 플렉트그룹 지분 전량을 15억유로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1월 절차를 마쳤다. 2016년 하반기 9년 만의 조 단위 인수였다. 1909년 설립된 플렉트그룹은 데이터센터 냉각 분야에서만 60년 넘는 경험을 쌓았고 전 세계 14개 제조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metro

제네시스, GV80 차세대 하이브리드 첫 적용

2.5 터보·듀얼모터 결합 352마력 구현
기존 모델 대비 출력 16%·토크 26% ↑
복합연비 25% 개선 전기차 감성 강화

제네시스가 전기차 주행감성과 고성능을 앞세운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공개했다. 다음달 출시 예정인 GV80 하이브리드에 처음 적용해 프리미엄 하이브리드 시장 공략에 나선다.

13일 제네시스에 따르면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핵심은 2.5가솔린 터보 엔진과 시동·발전용 모터(P1), 구동·회생제동용 모터(P2)를 결합한 병렬형 구조가 적용됐다. 합산 최고출력은 352마력, 합산 최대 토크는 54.0kg·m에 달한다. 기존 GV80 2.5터보 대비 출력은 약 16%, 토크는 26% 높였다. 연구소 자체 시험에서는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약 7.1초 만에 도달했다.



제네시스 GV80 하이브리드.

효율 개선도 눈에 띈다. GV80 19인치 2WD 5인승 기준 자체 측정 복합연비는 기존 2.5터보보다 25% 이상 향상됐다. 다만 정부 인증 연비는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하이브리드 시스템 최초로 수냉식 배터리를 적용한 것도 특징이다. 배터리 온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공냉식 대비 높은 방전 출력을 확보하고, 모터 활용 영역을

넓혔다. 이를 통해 정속성과 선형적인 가속감을 강화했다.

특히 출발 직후 약 시속 30km까지 EV 모드 활용을 늘려 냉간 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엔진 진동과 소음을 최소화했다. 도심 정체나 잦은 신호 구간에서도 전기 모터 주행을 적극 활용한다.

가속 성능 역시 강화했다. EV 주행 중 급가속 요구가 들어오면 변속과 엔진 클러치 접합을 동시에 제어해 즉각적인 동력 응답을 구현한다. 시속 100km 주행 중 재가속 성능은 기존 2.5터보보다 약 18% 빠르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후진에는 P2 모터를 역방향으로 구동하는 방식을 적용해 변속기 R단 관련 부품을 줄였다. 이에 따라 중량과 마찰을 낮추면서 전달 효율과 출발 가속 성능을 높였다.

/양성운 기자 ysw@

정기선 “최대 실적에 안주 말라”

HD현대, AI·신사업 미래전략 점검

정기선 HD현대 회장이 분기 기준 최대 실적에도 계열사 경영진에 장기적인 관점의 경영을 주문했다. 주력 사업의 실적 개선에 안주하지 않고 인공지능(AI) 전환과 신사업 등 미래 성장동력을 준비해 시장 변화에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HD현대는 13일 경기 성남시 판교 글로벌R&D센터에서 정 회장과 조영철·조석·이상균 부회장, 조선·해양·에너지·건설기계 등 11개 계열사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그룹 사장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사장단은 계열사별 상반기 실적과 신사업, 미래 성장전략을 점검하고 하반기 사업계획과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그룹 차원의 인공지능 전환(AI) 등 주요 현안과 사업별 실행 로드맵의 실현 가능성

도 살폈다.

특히 AI 기술의 계열사 도입 현황을 점검하고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보안 위험에 대한 예방대책의 실효성을 확인했다.

정 회장은 최근 실적 호조에도 장기적인 관점의 의사결정을 강조했다. HD현대는 지난 2분기 연결 기준 매출 22조4094억원, 영업이익 4조1246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0.2%, 262.2% 증가한 것으로 영업이익은 지난 2017년 지주사 체제 전환 이후 분기 기준 최대다.

정 회장은 “전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증대된 상황에서도 우리 그룹은 대부분의 사업에서 견조한 실적을 거뒀다”면서도 미래지향적인 의사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혜은 기자 dhalehale@

CJ대한통운, 택배 점유율 45% 돌파

상반기 물량 9억2100만개 13.2% 증가

CJ대한통운이 국내 택배시장에서 올 상반기 45%대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며 선두 자리를 더욱 굳히고 있다.

증권가에선 ‘배일요네’를 중심으로 한 ‘주 7일 배송’ 등 서비스 차별화가 점유율을 더욱 끌어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물량 추가 확대에 의한 규모의 경제 효과로 수익성까지 개선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3일 물류업계와 증권가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올해 상반기 CJ대한통운의 택배시장 점유율을 전년 동기보다 2.3포인트 늘어난 45.2%로 추산했다.

NH투자증권은 CJ대한통운의 점유율이 3분기와 4분기에도 각각 45.5%,

45.8%까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상반기 CJ대한통운의 택배 물량은 9억2100만개로 전년 동기 대비 13.2% 증가하는 등 업계들 웃도는 물량 성장세가 점유율 확대에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NH투자증권 정연승 연구원은 “CJ대한통운을 제외한 국내 택배업체들은 물량 성장의 한계와 비용 부담이 누적되고 있는 반면 CJ대한통운은 서비스 격차를 기반으로 점유율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단기적인 가격 경쟁에 따른 수익성 부담은 존재하지만 장기적으로는 CJ대한통운 중심의 국내 택배시장 경쟁구도가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LS증권도 배송 서비스 차별화가 고객선점 효과를 내면서 물량과 시장점유율이 동반 상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승호 기자

1조 LP성장펀드 출범해 벤처투자 활성화

중기부·한국벤처투자 민간 출자 유도
우선손실충당·풋옵션 혜택 강화

1조원 규모의 차세대 벤처투자 플랫폼 ‘LP성장펀드’가 본격 출범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는 13일 서울 마포 스타트업벤처 캠퍼스(SVC) 서울에서 LP성장펀드에 참여하는 출자기관 등과 함께 ‘LP성장펀드 출범식’을 진행했다.

LP성장펀드는 다양한 출자기관이 벤처투자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구조로 설계된 투자 플랫폼이다. 연기금, 금융권, 산업계와 정부가 함께 조성하는 펀드다. 정부가 자펀드 또는 모펀드 방식

의 투트랙 출자사업 구조를 설계하고 우선손실충당, 풋옵션 등 강화된 혜택을 제공해 다양한 민간 출자기관이 과감하게 벤처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목적이다.

LP성장펀드 출범에 따라 중기부는 모태펀드가 신규 출자자 유입과 연기금 출자 확대를 이끌어내는 차세대 벤처투자 플랫폼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했다. 출자를 결정한 18개 기관 중 5개 기관이 LP성장펀드를 계기로 최초로 벤처투자조합 출자에 나선다. 5개 기관은 국민체육진흥기금, 공공방안정화기금, 한국수출입은행, KMI한국화학연구소, 극동물류그룹이다. /김승호 기자 bada@

HMM, 2분기 영업이익 52%↑ 불확실성 속 수익성 개선

HMM이 글로벌 해운 시장 불확실성 확산 속에도 2분기 수익성 개선에 성공했다. 상반기 영업이익률 10.2%를 기록하며 글로벌 해운업계에서 경쟁력을 더욱 견고히 다지고 있다. HMM은 2분기 매출액 3조4020억원, 영업이익 3541억원을 기록했다고 13일 밝혔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0%, 영업이익은 52% 급증한 수치다. 상반기 전체 매출은 6조1207억 원으로 전년보다 12% 증가했다. 다만 상반기 영업이익은 6232억원으로 전년 동기(8471억원) 대비 일시적 감소세를 기록했다. 이는 3월 이후 중동 전쟁에 따른 매출 손실과 연료비 등 원가 상승이 부담으로 작용했다. /양성운 기자 ysw@

AX 사업, 외형 성장 이끌었다

통신3사, 2분기 영업익 ‘선방’

KT, 영업익 6483억… 36.1%↓
지난해 1조 이상 수익에 역기조 효과
SKT, 5600억으로 회복… 67.3%↑
AIDC 매출 1362억, 92.5% 급증
LG U+, 3445억 ‘역대 최대 실적’
인건비·수수료 등 비용 효율화 영향

통신 3사가 올해 2분기 견조한 실적을 거뒀다. KT와 SK텔레콤은 영업이익 등락에서 엇갈렸지만 일회성 요인을 제외하면 모두 안정적인 수익성을 유지한 것으로 분석된다. LG유플러스는 분기 기준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본업인 유·무선 통신은 선방한 가운데 외형 성장을 이끈 인공지능 전환(AX) 사업이다. 클라우드 기업간거래(B2B)와 AI 데이터센터(DC) 구축 등 신사업이 약진했다.

◆KT·SKT 영업이익 본궤도…LGU+는 사상 최대

13일 정보통신 업계에 따르면 KT는 박윤영 대표 취임 이후 첫 실적표에서 안정적인 수익성을 입증했다. 수치상으로는 2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 648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1% 급감했지만 이는 지난해 1조 이상의 수익을 거둔 데 따른 역기조 효과로 분석된다.

실제로 KT의 지난 2분기 영업이익은 1조148억원이다. 당시 KT는 부동산 자회사 K에스테이트가 광진구 롯데아트폴 아파트로 약 4000억원의 대규모 분

양이익을 거둔 것을 원인으로 진단했다. 이를 빼고보면 평년 수준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 6000억원대 영업이익은 최근KT의 분기 실적과 비교해도 오히려 높은 수준이다. 전분기 영업이익은 4827억원이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해킹 사고로 악화된 수익성을 회복했다. 2분기 영업이익은 566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67.3% 증가했다. 지난해 2분기에는 해킹 사태로 인한 유심 교체와 대리점 손실보상 등 약 2500억원의 일회성 비용이 반영되면서 영업이익이 3383억원까지 떨어졌다.

LG유플러스는 역대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비용 절감 효과를 톡톡히 봤다. 2분기 영업이익은 3445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3.1% 증가했다. 상각전영업이익(EBITDA) 마진율은 33.6%로 수익성을 입증했다. 인건비와 판매수수료 등 비용 효율화가 실적 개선을 이끌었다.

◆AI 데이터센터 등 AX가 ‘효자’…통신 본업도 안정적

통신업체들의 본업인 유·무선 통신사업이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간 가운데 2분기 성장을 이끈 사업 부문은 단연 인공지능 전환(AX)이다. 통신사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투자를 확대하면서 매출 성장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KT와 KT클라우드의 AX 관련 매출은 367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3% 증가했다. 지난 1분기와 비교해도 4.8% 확대됐다. KT의 AX 사업은 AI 데이터센터와 해저케이블, AI 컨택센터(AICC) 등을 포함한다. 별도 AI 데이터센터

터 매출은 공개하지 않았다.

반면 SK텔레콤은 AI 데이터센터 단일 매출에서 크게 앞섰다. 2분기 AIDC 매출은 1362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92.5% 대폭 증가했다. AI 클라우드·AI 컨택센터(AICC)·AI 팩토리·생성형 AI 마케팅 등 AI 사업 매출도 613억원으로 24.5% 늘었다. 대규모 투자 전략이 실제 매출 성장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LG유플러스는 AIDC 매출을 포함한 기업 인프라 수익이 8.6% 성장한 4644억원으로 나타났다. AIDC만 놓고 보면 전년 대비 28.9% 증가했으며 구체적인 수치는 발표하지 않았다. 스마트모빌리티, AICC 등 솔루션 사업도 6.8% 증가해 B2B 부문이 고르게 성장했다.

유·무선 통신 부문에서는 SK텔레콤은 무선 통신 부문에서 5G 시장점유율을 바탕으로 우위를 유지했다. 5G 시장 점유율은 약 45.7%로, 가입자는 약 1800만명이다. KT는 초고속 인터넷·IPTV 등 유선 분야에서 가장 두터운 가입자 기반을 보였다. KT의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는 1023만명, IPTV 가입자 954만명이다. LG유플러스는 5G 보급률이 84.9%로 통신 3사 중 가장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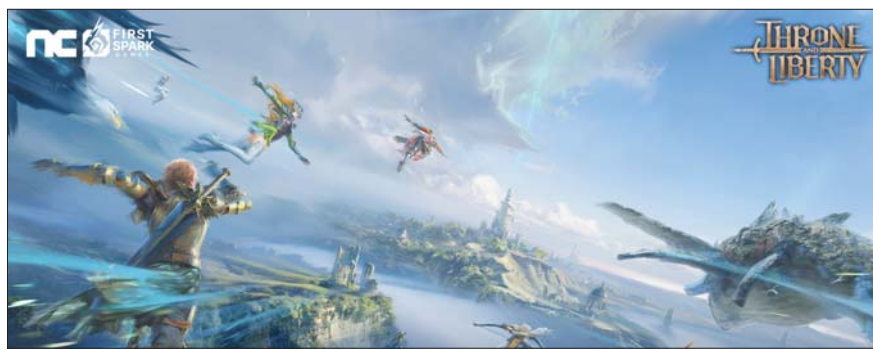
한편, 올해 2분기 KT는 매출 6조6799억원, 영업이익 6483억원을 냈다. SK텔레콤은 매출 4조3591억원과 영업이익 5660억원을 올렸고, LG유플러스는 매출 3조6949억원, 영업이익 3445억원을 기록했다.

/조민선 기자

msjo@metroseoul.co.kr



metro



쓰론 앤 리버티 대표이미지.

/엔씨

엔씨, ‘TL’ 글로벌 서비스 직접운영 체제로

〈쓰론 앤 리버티〉

연내 자체 서비스 체제 전환
통합 글로벌 환경서 플레이 가능

엔씨가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 RPG) ‘쓰론 앤 리버티(TL)’의 글로벌 서비스를 연내 자체 서비스 체제로 전환한다고 13일 밝혔다.

TL은 엔씨의 개발 자회사 퍼스트스파크 게임즈가 개발한 MMORPG다. 엔씨는 그동안 아마존 게임 스튜디오와 협력해 TL의 글로벌 서비스를 운영해 왔다.

엔씨는 글로벌 이용자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발과 서비스 운영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직접 운영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연내 서비스 전환이 완료되면 엔씨의

게임 플랫폼 ‘퍼플’을 비롯해 스팀, 플레이스테이션, 엑스박스 등 PC와 콘솔 플랫폼 이용자들이 하나의 통합된 글로벌 환경에서 TL을 즐길 수 있게 된다.

서비스 주체가 변경되더라도 기존 이용자 데이터와 게임 내 자산은 그대로 유지된다. 캐릭터 정보와 플레이 진행도, 인벤토리 아이템, 게임 내 화폐 ‘루센트’ 등이 모두 이전된다.

퍼플 이용자는 별도의 약관 재동의나 추가 절차 없이 기존 계정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엔씨는 서비스 전환과 관련한 세부 일정과 상세 정보를 TL 공식 홈페이지와 별도 안내 페이지를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최빛나 기자

KT,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 정보통신 지원

50개 거점에 통신 인프라 구축
망 용도별 분리, 전송망 이중화

KT가 충청권에서 열리는 국내 종합 스포츠대회에 정보 통신 서비스를 지원한다.

KT는 13일 KT 광화문빌딩에서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와 정보통신부문 공식 후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내년 8월 열리는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는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등 충청권 4개 시·도가 공동 개최하는 국제 종합 스포츠대회다. 전 세계 150여 국가에서 1만5000여명의 선수단과 관계자가 참여할 예정이다.

KT는 지난해 클라우드 전문 기업 아이티센클로잇과 컨소시엄을 꾸려 대회 정보통신 인프라와 대회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자로 선정됐다. 협약에 따라 KT 컨소시엄은 정보통신 부문 공식 후원사로 참여해 대회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유·

무선 통신 및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통합 관제센터 운영, 경기장 기술지원 등을 맡는다.

구체적으로는 경기장과 훈련장, 개폐회식장, 주요 운영시설 등 약 50개 거점에 통신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대회망·업무망·인터넷망·방송중계망은 용도별로 분리해 운영하고, 전송망은 이중화해 대회 기간 네트워크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통합관제센터에서는 경기 운영과 정보통신 서비스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장애·비상 상황에 대응한다. AI 기반 콜센터와 다국어 상담 서비스도 운영에 참가자와 방문객이 대회 일정, 교통, 관광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KT는 1997년 무주·전주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시작으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등 다수의 대형 국제 스포츠 행사에서 주관 통신사 역할을 수행했다. 인공지능 전환(AX) 기술 역량을 기반해 이번 대회 운영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조민선 기자

게임 넘어 AI·웹툰·모빌리티로 ‘외연 확장’

‘지스타 2026’ 새로운 변화

11월 19~22일, 부산 벡스코서 진행
메인스폰서에 AI콘텐츠 플랫폼 ‘크랙’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2026’이 게임 중심 전시회를 넘어 AI와 웹툰, 모빌리티 등 다양한 콘텐츠 산업을 아우르는 융합형 행사로 변화를 시도한다.

지스타조직위원회는 13일 지스타 2026의 주요 프로그램과 전시장 구성, 운영 정책을 공개하고 ‘산업과 타깃 오디언스의 외연 확장’과 ‘인하우스 콘텐츠 확대’를 올해 2대 핵심 전략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22주년을 맞는 지스타 2026은 오는 11월 19일부터 22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메인스폰서다. 조직위는 뽀빠테크놀로지스가 운영하는 AI 스토리 창작 플랫폼 ‘크랙’을 메인스폰서로 선정했다. 게임사가 아닌 AI 콘텐츠 플랫폼이 메인스폰서를 맡는 것은 지스타 개최 이래 처음이다. 크랙은 AI를 활용해 이용자가 직접 이야기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조직위는 게임 산업의 핵심 화두로 떠오른 AI와 내러티브를 결합해 기존 게임 전시에서 한 단계 확장된 콘텐츠 경험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조영기 지스타조직위원장.

/최빛나 기자

조영기 지스타조직위원장은 “올해 지스타는 경계를 넘어 다양한 산업과 연결되는 융합형 콘텐츠를 발굴하고 직접 기획·운영하는 인하우스 콘텐츠를 대폭 강화했다”며 “참가 기업의 구성을 다양화하는 것은 물론 지스타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선사하는 대한민국 대표 플랫폼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대중 접점에 확대한다. 올해 메인키비주일은 네이버웹툰 인기작 ‘유미의 세포들’ 이동진 작가와 협업해 제작했다. 트랜드 거대 플랫폼 크립과는 공식 굿즈가 포함된 ‘스페셜 패스’를 선보인다. 오는 9월 1일부터 일주일간 현대백화점 판교점에 지스타 팝업스토어도 운영한다.

벡스코 제1전시장은 BTC 전용 공간으

로 운영된다. 1차 공개 참가사에는 크랙을 비롯해 구글플레이, 웹젠, 팀42, 호요버스, 넷이즈게임즈, 빌리빌리 게임, 센추리게임즈 등이 이름을 올렸다. 제2전시장 1층에는 외연 확장을 체감할 수 있는 특별 전시 구역이 마련된다. 현대자동차 특별 부스와 ‘2026 현대 N 비추얼컵’ 그랜드 파이널을 비롯해 인텔 연계 신작 체험존,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게임문화축제 체험관, 지스타 특설무대 등이 들어선다.

조직위 자체 콘텐츠인 ‘지스타 인디쇼 케이스 2.0: 갤럭시’도 제2전시장에 조성된다. 디블버 디지털, 디스코드, 스팀덱, 유니티 등이 참여해 게임 전시뿐 아니라 창작과 체험, 개발자 교류를 아우르는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대표 콘퍼런스 ‘G-CON 2026’은 11월 19일부터 20일까지 벡스코 컨벤션을 그랜드볼룸에서 1500석 규모로 열린다. 올해 주제는 ‘내러티브’다. 크랙은 G-CON 역사상 처음으로 단독 메인스폰서도 맡는다. 연사로는 장항준·이병헌 감독을 비롯해 박인제 감독과 조용희 ‘프래그마타’ 디렉터, 시프트업 김형태 대표와 마카미 신지 대표, ‘파이널 판타지 VII’의 기타세 요시노리 프로듀서와 하마구치 나오키 디렉터 등이 참여한다. 지스타 2026은 올해도 100% 사전 예매제를 운영한다.

/최빛나 기자 vitna@

NARA CELLAR

역시! 몬테스

결국! 몬테스



2025 브랜드 고객충성도 대상
와인 부문 2년 연속 1위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투자자·소비자 보호’ 강화… 지배구조·조직거취는 안갯속

이찬진 금감원장 취임 1주년

자본시장 특사경 인지수사권 도입
한화솔루션 등 기업공시 심사 강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엇박자’
지배구조 등 예고 정책 구체화해야
금감원, 개각·지방이전 가능성도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이달 14일 취임 1주년을 맞는다.

13일 금융감독원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원장은 지난 1년간 불공정거래와 불완전 판매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이고 금융회사 내부통제를 강화하며 ‘투자자·소비자 보호’를 감독행정의 전면에 내세웠다.

자본시장에서는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권한을 확대하고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걸린 공시 심사를 강화했다. 다만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둘러싼 발언과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안 발표 지연은 논란을 낳았다. 개각과 금감원 지방 이전 가능성도 취임 2년 차를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불공정거래 수사 강화…일반주주 보호 확대

이 원장의 자본시장 정책은 불공정거래 엄단과 일반주주 보호로 요약된다. 혐의 적발에 그치지 않고 강제수사와 시장 퇴출까지 이어지는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금감원은 지난 4월 자본시장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도입했다. 행정조사 과정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7월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융소비자 현장 목소리 청취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서 중대한 혐의를 발견하면 특사경이 직접 강제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난 6월 미공개정보 이용과 선행매매 혐의 사건 2건이 수사로 전환됐고 7월에는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기사 송출 전 주식을 매매한 기자와 공개매수 정보를 이용한 증권사 고위 임원, 호재성 기사를 유포하며 선행매매한 핀플루언서 등도 조사선상에 올랐다.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검찰 등이 참여하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지난해 7월 36명에서 올해 6월 말 90명으로 확대됐다.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걸린 기업공시 심사도 강화했다. 한화솔루션의 대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에는 정정을 요구해 증자 규모 축소를 이끌었다. 이마트와 신세계푸드의 포괄적 주식교환에서는 주주간 담회 개최와 주식매수청구권 가격 조정을

유도했다.

자산운용사의 의견권 행사율은 2024년 79.6%에서 올해 91.8%로, 반대 의견권 행사 비율은 5.2%에서 8.2%로 높아졌다. 지난 1분기 말 종합금융투자사업자 7곳이 종합투자계좌(IMA)와 발행어음으로 공급한 모험자본도 9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4분기보다 25.7% 증가했다.

◆사전 예방 내세웠지만 레버리지 ETF는 ‘엇박자’

금융사고 발생 후 책임을 묻는 데서 나아가 사고 전에 위험을 막겠다는 것이 이 원장이 내세운 감독 기조였다. 최고경영자(CEO)와 임원별 책임 범위를 명시한 책무구조도 안착에 힘을 쏟았고 금융지주와 은행·증권·보험사도 내부통제 조직과 점검 체계를 정비했다.

소비자 보호 역시 사후 규제에서 상품

설계 판매 단계의 위험을 점검하는 방향으로 넓혔다. 원장 직속 소비자보호총괄 부문과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를 신설했다. 티몬·위메프 사태에서는 청약철회권과 할부항변권을 인정해 1만1696건, 132억2000만원 규모의 환급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반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사전 예방 기조와 엇박자를 냈다. 금융당국이 상품 출시를 허용한 뒤 과열과 손실 위험이 커지자 기본예탁금 3000만원, 모의거래 의무화, 과다리스크 관리 강화 등을 잇달아 도입했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지난 6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두고 “도박판에 뽀찌(도박판에서 딴 돈의 일부를 남에게 떼어주는 돈) 받는 사람이 배불리는 모양새”라며 “그때 드러누웠어야 했나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인투자자 보호를 강조한 취지였지만 상품 출시 후 감독당국 수장이 도입 과정에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정책 일관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졌다.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 제재에서도 금융위와 금감원이 과징금 산정과 감정 범위를 놓고 이견을 보였다.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내세운 것과 별개로 실제 제재와 제도 운영의 예측 가능성은 보완할 부분으로 꼽힌다.

◆지배구조 개선 지연…금감원 이전도 변수

취임 2년 차에는 예고한 정책을 구체화

하는 일이 주요 과제로 꼽힌다. 금융지주 CEO 선임 절차와 이사회 독립성을 강화하는 지배구조 개선안이 대표적이다.

이 원장은 금융지주 회장이 우호적인 이사회를 통해 ‘참호’를 구축한다고 비판해 왔다. 지난 3월에는 개선안이 다음 달 중 마련될 것으로 예상했고 6월에는 KB금융지주 회장 후보군 확정 전에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CEO 3연임 제한 등을 둘러싼 조율이 길어지면서 개선안은 8월에도 나오지 않았다.

아울러 이 원장과 금감원의 거취도 불확실하다. 정치권과 관가에서는 오는 17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경제·금융당을 포함한 개각 가능성이 거론된다.

금감원은 지방이전 가능성과도 마주했다. 이 원장은 지난 3월 금융회사와 자본 시장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들어 “감독기구가 현장을 떠나는 것은 우스운 일”이라며 지방 이전에 반대했다. 다만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고 있어, 금감원 일부 기능의 이전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다.

금감원 본원을 이전하려면 서울에 주된 사무소를 두도록 한 현행법을 개정해야 한다. 감사·감독 기능은 서울에 남기고 기획·지원 부문만 옮기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이전 대상과 지역은 확정되지 않았다. 취임 2년 차에는 지배구조 개선과 불공정거래 근절 등 지난 1년간 추진한 정책이 시장에서 어떤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CJ CGV,大作·특별관 흥행 업고 성장세

올해 영업이익 690억, 내년 1120억 전망
상반기 특별관 관객, 전년대비 49% 늘어
국내사업 적자·재무부담은 고려해야

“자정 화자인데도 ‘오디세이’는 매진이더라고요. A열 중앙이라도 보려고요.”

‘오디세이’는 CGV용산아이파크몰 IMAX관에서 앞줄까지 예매가 물리고 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정가를 크게 웃도는 판매 글도 등장할 정도다. 지난달 29일 개봉한 ‘스파이더맨: 브랜즈 뉴 데이’ 역시 4DX와 SCREENX를 중심으로 관객을 끌어모으고 있다.

지난달 16일 52주 최저가인 4150원까지 떨어졌던 CJ CGV 주가는 13일 5290원에 거래를 마쳤다. 저점 대비 상승률은 27.5%로 증권가에서는 조심스럽게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다. 증권가는 신작 공급과 특별관 성장, 비용 효율화에 힘입어 실적 개선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현재 주가에서 추가 상승할 여력을 두고는 판단이 달랐다.

대신증권은 올해 영업이익을 690억원, 내년에는 1120억원으로 전망하며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7000원을 유지했다. 국내 분기 관객이 3000만명에 도달하면 국내 사업에서 약 100억원의 영업이익을 낼 수 있다고 분석했다. CJ 4DPLEX의 해외 확대와 국내 관객 회복이 이어질 경우 기업가치 평가배수가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이날까지 두 작품의 누적 관객 수는 약 900만5000명에 달한다. 상반기 일반관 중심의 회복에 이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지난 2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영화관을 찾은 시민들이 주말을 보내고 있다. /뉴시스

어 하반기에는 할리우드 대작을 특별관에서 반복 관람하는 수요가 두드러졌다.

특별관 수요 확대는 관련 포맷과 상영관을 운영하는 CJ CGV의 3분기 실적 기대를 높이고 있다. 특히 4DX와 SCREENX는 자회사 CJ 4DPLEX가 운영하는 티켓 판매뿐 아니라 연결 실적에도 직접 반영된다. 상반기 특별관 관객은 약 295만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49% 늘었다. 8월 기준 특별관은 전체 관객의 13.3%를 차지했지만 박스오피스 매출 비중은 19.0%에 달했다.

특히 SCREENX와 4DX는 CJ CGV의 종속회사 CJ 4DPLEX가 운영하는 포맷이다. 해외 극장에 기술과 콘텐츠를 공급할 수 있어 국내 관객 회복 이상의 성장 여력이 있다는 평가다. 작자 점포 폐점과 임차료 절감도 같은 관객 수에서 이익을 늘리는 요인으로 꼽힌다.

삼성증권은 목표주가를 17% 올린 6200원으로 제시했다. 비용 효율화와 특별관 사업가치 확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 서도 국내 사업 적자와 재무 부담을 고려해 투자의견은 ‘중립’을 유지했다. 최민하

삼성증권 연구원은 “분기당 약 500억원 안팎의 금융비용이 지속되는 등 재무 부담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최신 확정 재무제표인 1분기 말 기준 사채 차입금은 1조4524억원, 리스부채는 약 1조4421억원이었다. 1분기 금융원가는 511억원으로 영업이익의 87억원을 크게 웃돌았다. CJ CGV는 지난 4월과 5월 총 6000억원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해 기존 전환사채와 신종자본증권, 기타 차입금을 상환했다. 신종자본증권은 회계상 자본으로 분류되지만 이자 지급 부담은 남는다. 2분기 잠정실적에는 차입금과 금융원가가 공개되지 않아 조달 이후 재무지표는 추후 나올 반기보고서에서 확인해야 한다.

신용평가사도 재무구조 개선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봤다. 한국신용평가와 나이스신용평가는 지난 6월 회사채 ‘A-’와 신종자본증권 ‘BBB+’ 등급을 유지했지만 등급전망은 ‘긍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조정했다. 국내 영화관의 더딘 회복과 자체 현금창출력을 통한 차입금 감축 지연을 반영한 판단이다. /허정윤 기자

LG이노텍, MSCI 한국지수 신규 편입

HLB·LG디스플레이 등 4곳은 제외

LG이노텍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한국 지수에 새로 편입됐다. 반면 HLB와 LG디스플레이, 포스코인터내셔널, 삼성에프시스템스는 지수에서 빠진다.

13일 글로벌 주가지수 산출업체 MSCI가 발표한 8월 정기 리뷰 결과에 따르면 LG이노텍은 MSCI 한국 지수 구성 종목으로 신규 편입됐다.

편입 종목은 HLB와 LG디스플레이, 포스코인터내셔널, 삼성에프시스템스 등 4개다. 이번 정기 리뷰에서 국내 종목은 1

개가 들어가고 4개가 빠지면서 구성 종목 수가 3개 줄어들게 됐다.

이번 변경은 오는 31일 장 마감 이후 리밸런싱을 거쳐 9월 1일부터 지수에 반영된다. 지수를 추종하는 글로벌 패시브 펀드도 이에 맞춰 LG이노텍을 매수하고 편출되는 4개 종목을 매도할 가능성이 크다.

리뷰 결과가 발표된 뒤 LG이노텍은 이날 프리마켓에서 강세를 보였다. 오전 8시 30분 기준 전 거래일보다 4.97% 오른 63만4000원에 거래됐다. 같은 시각 편출 종목 가운데 HLB와 포스코인터내셔널은 각각 0.36% 하락했고, 삼성에프시스템스는 0.12% 상승했다. /허정윤 기자

코스콤-NH투자증권, 토큰증권 플랫폼 ‘맞손’

내년 2월 토큰증권 제도와 대응

코스콤과 NH투자증권이 토큰증권 제도에 대비해 공동 플랫폼과 사업모델 검증에 나선다.

코스콤과 NH투자증권은 지난 12일 서울 영등포구 코스콤 본사에서 ‘토큰증권 플랫폼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2027년 2월 토큰증권 제도와 법 시행에 대비해 관련 사업 역량을 강화하고, 실제 상품과 고객 서비스로 연결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NH투자증권은 코스콤이 구축한 토큰증권 공동 플랫폼 서비스에 참여한다.



(왼쪽부터)배광수 NH투자증권 대표이사와 윤창현 코스콤 사장이 업무 협약 체결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NH투자증권

양사는 코스콤의 공동 플랫폼을 활용해 시스템과 업무 프로세스를 검증하고 토큰증권 발행·계좌관리 업무를 연계할 계획이다. /허정윤 기자

플랫폼 분쟁 4년 새 4배 급증 입점업체 피해·갈등도 커졌다

공정위, 배달·쇼핑·숙박 분야 조사
수수료·광고비 등 비용 부담 점검
사업자 운영·데이터 정책도 검증
설문·서면조사로 거래 현황 파악
11월까지 조사해 개선방안 마련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급성장 속에 입점업체의 피해와 갈등이 지속되자 정부가 배달·오픈마켓·숙박 등 주요 3대 플랫폼 분야를 대상으로 대규모 실태조사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 현황 및 불공정거래 사례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조사 기간은 오는 11월 12일까지 3개월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은 최근 수년간 급격히 늘었다.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접수된 분쟁 건수는 2021년 103건에서 2025년 445건으로 4년 사이 4.3배로 증가했다. 공정위는 플랫폼 시장이 커지면서 과도한 수수료 부담이나 불공정 행위로 인한 소상공인 애로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민원이 집중되는 배달·오픈마켓·숙박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시장 구조와 거래 현황을 면밀히 진단하기



주경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로 했다. 대상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쿠팡, G마켓, 11번가, 여기어때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22년 말 실시된 실태조사 이후 변화된 시장 환경을 재점검하고, 입점업체가 실제로 체감하는 부담을 파악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조사는 입점업체 대상 설문조사와 플랫폼 사업 대상 서면실태조사 두 트랙으로 진행된다. 공정위는 입점업체 설문을 통해 수수료 등 비용 관련 애로사항, 거래 전반에서 겪은 피해 사례, 분쟁 발생 시 조정 및 해결 경험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동시에 공정거래법 제87조 제1항에 근거해 주요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도 병행한다. 공정위가 실태조사표를 송부하고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플랫폼 사업자의 수수료 및 광고비 구조, 플랫폼 운영 실태, 데이터 관련 정책·기준, 분쟁 처리 절차 등을 종합 점검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플랫폼 시장 전반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metro

폭염·고수온 피해에 농어가 지원 확대

해수부, 고수온 피해 어가 지원 강화
재난지원금 332억원으로 대폭 확대
수산물 300억원 할인 최대 50% 적용

올해 고수온 발생 피해를 입은 어가에 대한 재난지원금이 작년 대비 150%가량 늘어난다. 또 가격변동 및 수급불안에 대응해 300억원 규모의 수산물 할인지원·최대 50% 할인 등이 실시된다. 농가에는, 폭염에 따른 작물 생육 정상화를 위한 약제·영양제 할인 공급이 지원된다.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전담반)’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폭염·가뭄 대비 농축수산물 가격·수급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해수부의 보고에 따르면 이달 10일 기준 전국 35개 해역 중 31개 해역에 고수온 특보가 내려졌다. 양식어류 183만 마리가 폐사했다. 이는 지난달 부산·울산·경남과 광주·전남 등 지역의 강수량이 지난해 대



10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 채소 상품이 진열돼 있다. /뉴시스

비 64% 감소한 데다 폭염까지 겹쳐 동·남해역 수온이 크게 오른 영향이다.

해수부는, 다만 전체 폐사 물량 가운데 시장에 출하할 수 있는 크기의 광어와 우럭 비중은 약 10%에 그쳤으며, 수산물 수급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고수온 피해가 확산할 경우 가격이 변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광어·우럭·전복 등 고수온에 취약

한 품종의 조기 출하를 유도해 피해와 수급 영향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수산물 할인 지원에 총 300억 원을 투입한다. 대한민국 수산대전-고수온 특별전을 개최해 주요 생선 품목을 최대 50% 할인한다는 계획인데, 할인 기간도 기존보다 4주 늘릴 예정이다. 피해 어가의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올해 재난지원금 예산을 332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53% 확대 편성했다. 9월 하순 추석 전에 1차 복구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도 폭염과 가뭄 장기화에 대비해 농축산물 수급 관리에 나섰다.

현재까지 경남과 전남에서 단감 1125.7헥타르(ha), 벼 572.5ha 등 농작물에 일소와 생육 저하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다만 배추와 무 등 여름 노지채소는 최근 주산지인 강원 평창·강릉·태백에 적정 수준의 비가 내리고 기온이 내려가면서 직황에 별다른 변동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무보, 유럽 탄소규제에 400억 금융 뒷받침

삼성물산 독일법인 매출채권 유동화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가 강화되는 유럽의 탄소규제에 대응해 우리 기업 해외 현지법인의 금융 지원 사격에 나선다. 무보는 우리 기업의 유럽 탄소규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약 400억 원(2500만 유로) 규모의 무역보험을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올해부터 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본격 시행되면서 변화된 통상환경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금융이다. 최근 유럽 현지 기업들이 통관 및 규제 대응 부담을 수출 공급자에게 전가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이에 맞서 해외 현지법인을 중심으로 판매구조를 빠르게 재편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 현지법인의 운전자금 확보가 기업들의 새로운 금융 과제로 부각된 상황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금융기관은 무보의 보험증권을 담보로 삼성물산 독일법인의 매출채권을 비소구 조건(매출채권 매입 후 수출자에게 추가 책임을 묻지 않는 조건)으로 매입한다. 삼성물산 독일법인은 해당 대금을 즉시 현금화해 운전자금으로 활용함으로써 현지 유동성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됐다. 또한 금융기관 역시 대금 미회수 위험을 없애고 위험가중자산을 경감해 BIS 비율 등 재무 건전성을 높이는 효과를 거두게 된다.

장영진 무보 사장은 “유럽 탄소규제 등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가 우리 기업의 해외사업 방식에도 새로운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금융 애로를 적기에 해소하고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농촌 에너지전환 속도 영농형태양광 확산

송 장관 “지역균형·에너지전환 핵심”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역균형 발전 및 국가 에너지 전환을 위해 농업·농촌의 에너지 전환이 시급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정부는 영농형태양광과 햇빛소득마을의 전국 농가 확산을 추진 중이다. 특히 중동 사태에 따라 재생에너지 전환의 중요성과 시급성이 더 커졌다는 판단하에, 지난 5월 이후 농업·농촌에 대한 현장 방문을 늘려 왔다.

송 장관은 13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 사꽃마을에 조성 중인 ‘영농형태양광 선도모델’의 착공 현장을 찾아 “수도권 영농형태양광 시범사업은, 지난해 정부가 영농형태양광과 햇빛소득마을을 제도화를 준비하면서 선도모델 마련을 위해 선제적으로 준비한 사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농업·농촌의 에너지 전환은 중요한 과제다. 지역균형 발전과 국가 에너지 전환에 기여 측면에서도 반드시 이루어

야야 하는 사명”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5월부터 농업·농촌 현장을 방문해 많은 분들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다”며 “그 결과로 마련된 ‘농업·농촌 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조만간 국민들께 보고드리고, 차질없는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정부는 전력 수요가 많고 계통에 여유가 있는 수도권에 ‘수익의 지역 환원 모델’을 조성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어 시범 지역으로 화성 사꽃마을을 선정했다.

농식품부는 그간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정부 및 한국농어촌공사 등과 협업해 컨설팅을 실시했다. 또 발전사업과 수익 공유를 주도할 주민참여형 마을협동조합 설립도 지원했다. 사꽃사회적협동조합은 이날 착공 이후 오는 10월 상업 발전을 개시해 수익 창출에 나선다.

총 1메가와트(MW) 용량의 태양광 발전을 통해 마을 소득이 창출될 전망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송상근(왼쪽 2번째) 부산항만공사 사장이 12일 항만기술개발기업 3개사 대표들과 협약 체결식을 갖고 있다. /BPA

부산항만공, 스마트 항만특허 이익공유 추진

중소 기술기업 3곳과 이익분배 계약

부산항만공사(BPA)가 중소 항만기술 개발기업 3곳과 ‘공유특허 실시이익 분배 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공동 기술개발 성과의 확산 및 공정한 이익 분배를 도모한다. 공사는 지난 12일 부산항만공사 사옥에서 엔카아, 엠비이, 디플러스 3개사와 이익분배 계약 체결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공사와 기업이 공동으로 보유한 스마트 항만기술 관련 특허 활용을 촉진하는데 목적을 둔다고 했다. 또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을 기술개발, 투자, 인력 투입 등 기여도에 따라 공정하게 나누는 방침이다. 계약 대상은 항만 하역장

비 관련 총 4개의 기술특허다. ▲와이어 로프 상시진단 관련 1건 ▲리모트 컨트롤 원격제어 관련 2건 ▲크레인 전도방지 장치 기술 관련 1건이다. 부산항만공사와 3개사는 공동 보유한 특허기술의 자유로운 사용을 보장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허 활용에 따른 수익정산도 기여도에 따르기로 했다.

공사는 이번 계약을 계기로 연구개발(R&D) 과정에서의 특허등록, 현장 적용, 사업화, 이익공유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 강화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우수 기술의 항만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해당 기업의 후속 연구개발과 판로 확대에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병원 조직문화·근무환경 개선 지원 강화

노사발전재단, 대한병원협회와 MOU
병원 특성 반영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노사발전재단이 13일 대한병원협회와 ‘병원 업종 특화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 간 협약은 이날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등 6개 기관이 체결한 ‘일하고 싶은 안전한 병원 만들기’ 공동 협약의

후속 조치다.

의료 현장의 조직문화 개선 및 지속 가능한 일터혁신을 목적으로, 대한병원협회와 협력해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을 도모한다.

양측은 협약을 통해 ▲병원 특성을 반영한 조직문화 진단 및 맞춤형 컨설팅 지원 ▲병원 업종 대상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공동 홍보 및 참여 확대 ▲병원 맞춤형 교육 및 정책·우수사례 공유 등에 협력하

기로 했다.

노사발전재단은 앞서 이달 초부터 의료기관 특화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의료기관의 조직문화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기존 컨설팅을 의료현장 특성에 맞게 개편한 것이 특징이다.

재단은 컨설팅을 받지 않는 의료기관도 언제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업 특화 교육 동영상 제작·게시할 예정이다. 또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조직문화 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제작하는 등의 조치도 추진한다.

/세종=김연세 기자

한림의료원, 의료진 아이디어 사업화… ‘K-헬스테크’ 육성

의료기술 사업화 지원 체계 미흡
개발 초기부터 기업·기관 등 참여
아이디에 투자·규제·시장 연결

국내 의료진의 임상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지만 현장 중심 새로운 아이디어가 실제 기술수출, 투자, 시장 진입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소멸하는 구조적 한계가 지속되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의사 창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 국내 의료 인공지능(AI) 프로젝트의 시범 단계 실패율은 80%에 달하고, 기술 개발 실패율 역시 70%를 상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인허가 규제 장벽, 네트워크 부재, 사업화 시스템 부족 등이 실패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한림대학교 의료원은 정면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의료진, 기술기업, 투자자(VC), 정부 및 지원 기관이 실질적인 개선을 도모해 한국형 헬스테크 플랫폼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9월 서울 코엑스에서 국내 의료 기술 사업화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컨퍼런스 ‘MEeT 2026’이 열린다. 행사 개최를 앞두고 13일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한



(왼쪽부터) 이즈피엠피 김은정 이사, 윤은주 한국컨벤션전시산업연구원 원장, 유경호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김용균 한림국제항생제내성센터장·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림의료원 및 관계자들은 성장 방안을 제시했다.

◆젊은 의사들 “현장 문제 어떻게 풀까”

현재 의사 창업 기업의 81.4%가 2016년 이후 설립됐을 만큼 의료 기술 사업화는 최근 들어 급격히 부상한 화두다. 정부 역시 2026년 의사과학자 양성 예산을 12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보건복지부 R&D 예산을 전년 대비 12.6% 늘린 1조 652억원으로 책정했다.

다만 의대생과 젊은 의료진의 의식 변화 속도를 기존 인프라가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유경호 학장은 “의료 현장에서 당면한 의료 문제에 대해

서 임상 연구와 첨단 기술을 활용해 환자에게 도움을 줄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며 “문제 발견부터 연구, 검증, 응용 과학 역량에 중점을 두고 교과 과정 개편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유 학장은 본인의 창업 경험을 언급하며 “규제 준수,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저촉, 병원 내부 업무 프로세스 적용 등 비기술적 장벽에서 어려움을 느꼈다”며 “기술 개발 이후가 아니라 시작 단계부터 투자자, 규제 전문가, 현장 의료진이 함께 대화하는 통합 생태계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파트너십… “K의료 경쟁력 제고”
한림대춘천성심병원 감염내과 김용균

교수는 실제 사례를 공유했다. 김 교수는 전 세계 사망 원인 9%, 국내 사망 원인 4위에 해당하는 ‘항생제 내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맞춤형 정밀 진단과 치료를 연구해 오던 중, 한림의료원과 스웨덴 옅살라대학교의 학술 행사에서 전환점을 맞았다.

김 교수는 “옅살라 연구진이 창업한 헬스케어 기업 아렉스다이나믹스와 교류하며 공동연구가 이뤄졌고 지난해 8월 유럽 연합(EU)의 국제 R&D 프로그램 ‘유로 스타스’에서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며 “이어 올해 8월 국내 조인트벤처(JV) 법인 설립 정식 승인까지 마쳤다”고 설명했다.

공동연구에 그치지 않고 후속 사업화로 확장되고 있는 모습이다. 실제로 김 교수

는 스웨덴 혁신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다각도로 확대하고 있다.

한림의료원은 이러한 글로벌 모델을 국내 의료 산업에도 이식한다는 구상이다. 단발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민간 주도의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둔다.

특히 ‘MEeT 2026’의 경우 발표 및 전시로 구성된 학술 대회나 스타트업 투자 유치에 치중된 데모데이 형식을 탈피했다. 미국 스탠포드대학교 대표 산학협력 ‘스파크’를 설립한 케빈 그레이스 교수 등 글로벌 전문가들이 직접 참석하며 이들의 전문 세션과 컨설팅 등이 제시된다.

윤은주 한국컨벤션전시산업연구원장은 “미국 스탠포드 스파크 방법론을 전 세계 40개 이상의 학술 기관에 확산한 케빈 교수의 방한 등 선진 모델이 K헬스케어 발전에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를 논의하는 국내 최초의 자리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며 “처음 개최되는 MEeT 2026은 기존 행사의 연장선이 아니라, 의료 기술 사업화에 필요한 만남과 대화를 중심으로 새롭게 설계한 행사”라고 덧붙였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metro

CJ온스타일, 3년간 80개 브랜드 키웠다

CJ온큐베이팅 거래액 16배 증가
판매 채널 확대 등 지원 범위 넓혀

CJ온스타일은 CJ온큐베이팅 선발 브랜드들의 2026년 상반기 합산 거래액이 브랜드 육성을 본격화한 2023년 하반기 대비 약 16배 증가했다고 13일 밝혔다.

육성 규모도 확대됐다. CJ온큐베이팅은 2023년 9개 브랜드를 시작으로 3년간 총 80여개 브랜드를 선발했다. 초기 상품 기획과 마케팅, 판로 지원에서 출발해 콘텐츠 기획, 판매 채널 확대, 투자, 글로벌 유통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다.

성장 가능성이 확인된 브랜드는 CJ온스타일의 모바일과 TV라이브 등 판매 채널을 활용해 고객 접점을 확대한다. 이후 투자와 글로벌 유통을 연계해 브랜드의 사업 확장을 지원하는 구조다.

바이오 뷰티 브랜드 ‘아로셀’은 2025년 1월 CJ온스타일 입점 이후 약 1년 반 만에 누적 거래액 300억원 돌파를 앞두고 있다. 같은 해 4월 CJ온큐베이팅 4기로 선



CJ온스타일이 ‘2026 CJ온큐베이팅’ 최종 30개 브랜드를 선발했다.

/CJ온스타일

발된 이후 월평균 거래액은 선발 이전보다 361% 증가했다. 해외에서는 인도네시아 ‘부츠(Boots)’와 ‘더 푸드홀(The Food hall)’ 등으로 판매처를 확대했다.

초기 선발 브랜드들도 사업 확장을 이어가고 있다. 1기 ‘넷세틴’과 3기 에스테틱 브랜드 ‘똘’ 등이 대표적이다. 단백질 셰이크 브랜드 ‘플레이밀’은 판매 채널 확대에 이어 투자 유치와 해외 진출로 사업 영역을 넓혔다. 운영사 에프앤엘코퍼레이션은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 통합경진대회에서 장관상을 수상했다.

올해 선발된 브랜드 가운데서는 뷰티 디바이스 브랜드 ‘EOA(이오에이)’가 상반기에만 약 50억원의 주문액을 기록했다.

CJ온스타일은 CJ온큐베이팅 운영 성과 등을 바탕으로 2024년과 2025년 2년 연속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브랜드 육성을 위한 외부 협력도 확대하고 있다. 최근 서울경제진흥원(SBA)과 업무협약을 맺고 유망 브랜드 발굴부터 상품 개발, 판로 확대, 글로벌 진출까지 공동 지원하기로 했다.

/김서현 기자 seoh@

콜마비엔에이치, 중간배당·자사주 소각

주주가치 제고, 신성장동력 확보

국내 대표 건강기능식품 제조개발생산(ODM) 기업 콜마비엔에이치가 주주 환원과 포트폴리오 확장에 나섰다. 사업 구조 개편을 통해 수익성을 끌어올린 데 이어 주주가치 제고와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전략을 구체화한다.

콜마비엔에이치는 지난 12일 이사회에서 중간배당, 자기주식 소각, 한국콜마 치약사업 양수 등을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보통주 1주당 60원의 현금 중간배당을 실시하고 보유 중인 자기주식 112만 636주 중 64만주를 소각한다. 총 배당금은 약 17억원 규모이며 배당 기준일은 오는 26일이다.

특히 이번 배당은 자본준비금을 활용한 감액배당 방식으로 주주들의 배당소득세 부담을 낮췄다. 향후 분기배당을 기본 방향으로 안정적인 배당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콜마비엔에이치는 최근 설립한 콜마오랄스에 200억원을 출자한다.

콜마오랄스는 구강케어 제품 제조개발 생산(ODM) 계열사다. 콜마비엔에이치는 한국콜마의 치약 사업을 양수해 구강케어 사업으로 사업 영역을 넓힌다는 방침이다. 차별화된 소재와 제형 기술을 구강케어 제품 개발에 접목해 제품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또 건강기능식품과 구강케어를 연계해 새로운 성장축을 육성한다는 복안이다.

이승화 콜마비엔에이치 대표는 “실적 회복을 바탕으로 주주환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에 나섰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주주환원 정책과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를 균형 있게 추진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오스템임플란트, 이중중대성 평가 도입

ESG 경영 체계 강화

오스템임플란트가 기술 혁신을 넘어, 투명한 경영과 환경·사회적 책임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2025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추진한 ESG 경영 활동 및 성과를 종합적으로 수록한 보고서다.

이번 보고서에서 기업 경영 활동이 환경·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외부 요인이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동시에 측정하는 ‘이중중대성 평가’를 정식 도입했다.

이를 통해 ▲환자 건강·안전 향상 ▲윤리 경영 준수 ▲치과 접근성 강화 ▲고객 소통 확대 ▲혁신 추진 등 5개 핵심 과제를 도출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핵심성과지표(KPI)와 연계한 성과 관리 체계도 구축하고 있다.

환경(E) 측면에서는 지난해 새로 조성한 송도 사옥 ‘트리플타워’는 녹색건축 인증과 에너지효율 1++ 등급을 획득했다. 금속 부산물 재활용 확대 및 종이 없는 사무실 전환으로 종이 사용량을 62% 줄이고 재생에너지 생산량도 전년 대비 58% 가량 늘렸다.

사회(S) 분야에서는 예방 중심 시스템을 가동해 ‘중대재해 Zero’를 달성했다. 근로 손실 재해율도 전년 대비 46% 이상 낮췄다. 337개 거래처 및 협력사와 행동강령 준수 서약을 맺고 6단계 실사(리스크 관리) 프로세스를 도입하는 등 공급망 체계도 정비했다. 아울러 치과계 장거 및 사회공헌 사업도 확대했다.

지배구조(G) 영역을 살펴보면, 지난해 5월 이사회 직속 ‘ESG위원회’를 출범해 지속가능경영을 최고 의사결정 단계로 격상했다. 국제 규범준수 시스템(ISO 37301) 강화와 더불어 정보보안 경영시스템(ISO 27001) 인증을 신규 확보하며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확장을 위한 보안 기초체력도 다졌다. /김수정 수습기자 kcrystal@

다이소 전용 제품으로 출시

동국제약이 균일가 생활용품점 다이소 전용 제품으로 ‘이너케어 필름 4종(사진)’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물 없이 입안에서 가볍게 녹여 먹는 필름 제형을 갖췄다. 하루 한 장으로 간편하게 건강을 관리할 수 있다. 개인 건강에 맞춰 선택할 수 있도록 PDRN, 글루타치온, 홍삼, 프로폴리스 및 아연 등 4가지 핵심 성분을 각각 처방했다.

‘마데카 PDRN 필름’은 연어아리추출물(PDRN)에 비타민C, 콜라겐 등이 더해졌다. ‘마데카 글루타치온 필름’은 리포좀 글루타치온 효모추출물을 처방했다. 레몬 맛을 구현해 글루타치온 특유의 냄새를



줄여 섭취 부담을 없앴다.

‘면역력 홍삼 필름’은 국내산 6년근 홍삼을 홍삼근7, 홍미삼3등 황금 비율로 배합한 것이 특징이다. 면역력 증진, 피로 개선 등에 중점을 뒀다. ‘프로폴리스&아연 필름’은 호주산 프로폴리스와 아연을 활용했다.

/이청하 기자

“ K-힐링 편의점 이야기 ”

뮤직 드라마

불편한 편의점 2

Always

2026.4.1 - OPEN RUN 후암씨어터

원작 김호연 불편한 편의점2 (나무옆의자 2022) | 총괄 프로듀서 황기현 | 각색·작사 박예슬 | 연출 승운 | 작곡·음악감독 서진영 | 무대디자인 주미영
조명디자인 정필균 | 음향디자인 안형록 | 무대제작 드림아트컴퍼니(주) | 제작PD 박민서

주최·주관 극단 지우 | 기획 (주)지우컴퍼니 (주)제이엘컬처 | 후원 나무옆의자 출판사 waterfallstory | 예매처 NOLticket 티켓링크 | 문의 02-332-4902

삼성복지재단, 내달부터 청소년 마음건강 교육 전국 보급

중·고등학교 교사 등 700명 대상
‘청소년 마음성장 프로그램’ 연수
학교 현장에 프로그램 정착 지원

삼성복지재단이 청소년의 우울·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 현장에서 ‘마음근력’을 기르는 교육 확산에 나선다.

삼성복지재단은 지난 11,12일 연세대학교 백주년기념관에서 전국 중·고등학교 교사 및 학교 관리자 약 70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마음성장 프로그램’ 교사 연수를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청소년 마음성장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학교생활 속에서 스스로 마음을 돌보고 회복하는 힘을 기르도록 돕는 예방 중심 교육이다.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의 ‘2025년 청소년 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중·고등학생의 약 26%가 최근 1년간 2주 이상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의 우울감



삼성복지재단은 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과 학교 현장의 마음건강 교육 확산을 위해 ‘청소년 마음성장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8월 11일부터 12일까지 양일간 연세대학교 백주년기념관에서 전국 교사 연수를 개최했다. /삼성복지재단

을 경험했고, 약 13%는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복지재단은 연세대학교 김주환 교수 연구진과 함께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김 교수는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키울 수 있는 비인지 역량을 ‘마음근력’으로 정의하고 ▲자기조절력 ▲대인관계력 ▲자기

동기력을 핵심 역량으로 제시했다.

프로그램은 매일 조희시간에 5분 내외로 진행하는 ‘일상 프로그램’과 매월 수업 시간에 실시하는 ‘집중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별도의 교육과정 변경 없이 호흡 훈련과 명상, 신체 감각 알아차리기 등을 학교 일과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삼성복지재단은 지난해 서울·경기 중·고등학교 5개교 학생 660명을 대상으로 12주간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그 결과 과제지속력과 자기 긍정, 관계성 등 긍정 지표가 높아지고 우울감과 불안 등 부정 지표는 낮아졌다. 프로그램 참여도가 높은 학생일수록 학업 성취도 향상 폭도 크게 나타났다.

이번 연수에서는 총 15시간 동안 10개 교육 세션을 통해 마음근력의 개념과 훈련 방법, 프로그램 운영 방향 등을 교육했다. 존중·감사 훈련과 내면소통 명상, 마음성장 노트 활용법 등 교사들이 학교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실습도 진행했다.

삼성복지재단은 오는 9월부터 프로그램을 전국 중·고등학교에 본격 보급하고 교사 연수와 연구진의 슈퍼비전 등을 통해 학교 현장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metro



금호석화, 중증장애인 맞춤형 보장구 지원

금호석유화학이 중증장애인 33명에게 맞춤형 보장구를 지원했다. 금호석유화학은 서울시 소재 장애인 복지시설 14개소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33명을 대상으로 총 6500만원 상당의 맞춤형 보장구를 지원했다고 13일 밝혔다. 백중훈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과 임직원들은 지난 12일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삼성농아원을 방문해 후원금을 전달하고 입소자들과 소통했다.

/금호석유화학



대한항공, 임현재 바이올리니스트 후원

대한항공은 서울 강서구 본사에서 임현재 공식 후원 협약식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임현재가 해외 콩쿠르 및 대회 출전 등 공식 일정으로 대한항공을 이용할 경우 항공권을 무상으로 제공받는다. 우기홍 대한항공 부회장(오른쪽)과 임현재 바이올리니스트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대한항공



LG U+, 오는 19일부터 ‘나눔마켓’ 열어

LG유플러스는 마곡, 용산 등 자사 사옥이 위치한 곳에서 ‘2026 LG유플러스 나눔마켓’을 연달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행사는 LG유플러스 마곡사옥(19~21일), 용산사옥(24~25일)에서 열린다. LG유플러스 임직원들은 물론 지역 주민들도 생산자와 직접 만나 상품을 체험하고 구매할 수 있다. /LG유플러스



이강영 세브란스병원장, 모범 리더로 선정

‘모든 환자는 최고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철학으로 병원을 이끌어온 이강영 병원장이 한독이 뽑은 모범 의료 리더로 이름을 올렸다. 한독은 ‘제23회 한독학술경연대상’ 수상자로 이강영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장을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한독



우리은행, 전북 발달장애인 스포츠 체험

우리은행은 지난 12일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관에서 전북 지역 발달장애인과 보호자를 위한 ‘스포츠 윈데이클래스’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우리금융의 발달장애인 고용지원 사회공헌 프로그램 ‘굿월스토어’에서 근로하는 발달장애인 및 보호자 400여 명이 참여했다. /우리은행

LG, 스켈레톤·하키 유망주 직접 발굴

2030년까지 국가대표팀 후원 연장
예비 선수 운동 능력 측정해 발굴
협회와 트라이아웃 캠프 운영도

LG가 스켈레톤과 아이스하키 국가대표팀 후원 계약을 2030년까지 연장한다. 장비와 훈련 환경 지원에 머물던 후원을 유망주 발굴·육성으로 넓히는 것이 이번 계약의 핵심이다.

13일 LG는 최근 스켈레톤 종목의 ‘LG 퓨처 슬라이드(LG Future Slide)’와 아이스하키 종목의 ‘LG 하키 드림즈(LG Hockey Dreams)’를 공식 론칭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두 종목의 선수층을 넓히고 대중적 관심을 끌어올리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LG 퓨처 슬라이드는 대한빙슬레 이스켈레톤경기연맹과 함께 ▲드래프트 캄바인(Draft Combine) ▲스켈레톤 강습회 ▲스타트대회로 이어지는 단계별 육성 트랙으로 운영한다. 이 중 드래프트 캄바인은 중·고교와 대학을 순회하며 예비 선수의 운동 능력을 측정해 유망주를 가려내는 프로그램으로, LG는 여기서 발굴한 선수를 강습회와 스타트대회로 연



이번 프로그램을 위해 대한아이스하키협회가 초청한 NHL 출신 코치 데이브 룩(Dave Rook, 오른쪽 세 번째)과 헝가리 U-17 국가대표팀 골리 코치 다비드 기네쉬(David Gyenes, 왼쪽 첫 번째)가 골리 선수들을 코칭하고 있다. /LG

계할 계획이다.

이어 아이스하키 종목의 LG 하키 드림즈는 대한아이스하키협회와 함께 ▲골리 캠프(Goalie Camp) ▲해외 리그 진출을 돕는 유망주 장학금 ▲2028년 이탈리아 돌로미티 발레티나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국가대표를 뽑는 트라이아웃 캠프(Tryout Camp)로 운영한다. 이 중 골리 캠프는 이달 10일부터 13일까지 북미 아이스하키리그(NHL) 등 해외 리그 출신 지도자를 초청해 국내 중등부 엘리트 골리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코스맥스, 차세대 K-뷰티 주역 키운다

중기부·무신사와 인디 뷰티기업 지원

코스맥스가 중기부, 무신사와 손잡고 인디 뷰티 브랜드의 자립과 성장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에 나선다.

코스맥스는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일대에서 열리는 ‘무뷰페 in 성수’에 참가해 인디 뷰티 기업과의 연합 부스를 선보인다고 13일 밝혔다.

지난달 21일 무신사는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소공인 판로개척지원사업’의 민간 협업형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번 행사도 해당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한다.

뷰티 부문 파트너사로 참여하는 코스맥스는 인디 브랜드 20곳의 제품 기획, 생산, 브랜딩, 마케팅 전략 수립에 이르는 초기 과정을 지원한다.

화장품 탄생의 전 과정을 직관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비밀 연구소(The Secret Lab)’ 테마를 적용했다. 부스는 연구·개발 기록을 담은 ‘아카이브 존’과 각 브

랜드의 대표작을 전시한 ‘브랜드 존’ 등으로 구성했다. 화장품 연구실을 구현한 포토존과 참여 브랜드의 제품을 증정하는 이벤트존 등 체험형 공간도 마련했다. 20일부터 22일까지는 ‘무신사 애프터 성수’에서 야외 부스도 운영한다.

방문객들은 무신사 온라인 기획전에서 참여 브랜드를 확인하고 코스맥스 인스타그램 계정을 팔로우하면 입장할 수 있다. 부스 내 비치된 QR 코드로 무신사 뷰티 구매 화면에 접속해 온라인 구매도 가능하다.

코스맥스 관계자는 “잠재력을 가진 소공인 K-뷰티 브랜드의 소비자 접점을 확대하고 초기 성장을 지원하고자 연합 부스 전시를 기획했다”며 “코스맥스의 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한 제품 연구개발 및 생산 지원은 물론, 온라인 홍보에 이르기까지 브랜드 육성 전반을 지원해 소규모 브랜드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김수정 수습기자 kcrystal@

이마트24, 북미 하이볼 ‘뉴트럴’ 팝업 운영

‘트렌드랩 성수점’서 진행

이마트24는 9월 13일까지 ‘트렌드랩 성수점’에서 캐나다 보드가 하이볼 브랜드 ‘뉴트럴(NUTRL)’ 팝업존을 운영한다.

‘뉴트럴’은 2017년 캐나다에서 출시된 보드가 RTD(Ready To Drink) 브랜드로, 미국 진출 이후 북미 지역으로 판매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OB맥주가 지난달 말 출시했다. 레몬 농축액과 탄산을 활용한 ‘뉴트럴 레몬’ 등이 주요 제품이다.

이번 팝업존은 소비자가 뉴트럴의 제품과 브랜드 콘셉트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달달고 산뜻한 맛을 선호하는 주류 소비 흐름을 반영해 제로슈거 제품인 ‘뉴트럴 레몬’을 중심으로 공간을 구성했다.

트렌드랩 성수점 외부와 내부에는 뉴트럴의 브랜드 이미지를 적용했다. 출입문과 외부 유리면에는 제품 이미지와 레몬·스마일 일러스트 등을 활용하고, 세븐

틴 합합 유닛 ‘CxM(에스캡스·민규)’이 참여한 브랜드 캠페인 ‘스마일 업(Smile Up)’ 이미지를 배치했다. 매장 내부에는 ‘뉴트럴 레몬’ 제품을 활용한 디스플레이와 포스터, 거울 포토존 등을 마련했다.

팝업존 운영 기간에는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굿즈 증정 행사도 진행한다. ‘뉴트럴 레몬’ 제품 구매 수량에 따라 전용 부채와 전용잔 등을 선착순으로 제공한다. 이마트24는 지난해 11월 문을 연 플래그십스토어 트렌드랩 성수점에서 브랜드 팝업존을 정기적으로 교체하며 다양한 협업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다.

그동안 W컨셉, 어뮤즈, 벌룬프렌즈, SSG랜더스, 레고, 앙상블스타즈!! 등 패션·뷰티·캐릭터·스포츠·게임 분야 브랜드와 협업해 팝업존을 운영했다.

이마트24 관계자는 “앞으로도 트렌드랩 성수점을 통해 분야에 제한 없이 다양한 브랜드와 협업하며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seoh@

인사 ◆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고용지원실업무과장 손성길 △산업보건정책과장 신백우 △직업건강증진팀장 유종호 △화학사고예방조사과장 윤현욱

부음 ▲장선순씨 별세, 류기섭(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씨 모친상 = 12일, 통영서울병원장례식장 VIP호실, 발인 15일 오전 6시30분. 055-644-9959

오늘의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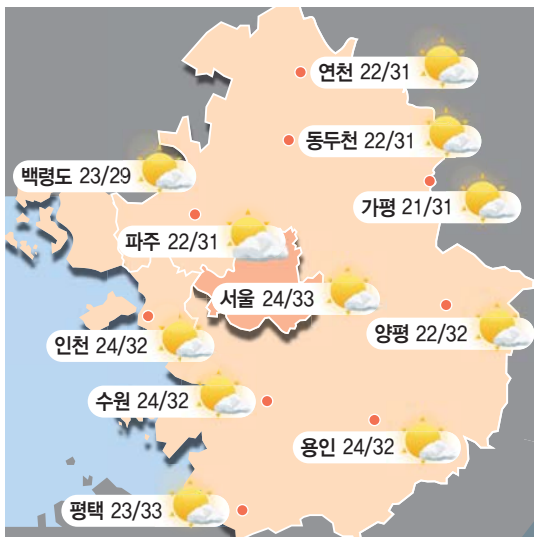
해돋이 / 05:47 | 해질 / 19:26

8월
14일 (금)
음력 : 7월 2일

수도권 날씨

24~33℃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MOZZARELLA
BURGER
CHEF EDITION

버거에 파인애플을

WHY?

단짠 조합으로 맛있게

HAWAII!!



By chef 벵딱한 천재

하와이안 모zzarella버거

LOTTERIA™

상기 이미지는 연출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메신저 피싱



이승환의
어드바이스

직장인 최 모씨는 출근길에 휴대폰으로 날아든 카카오톡 메시지 한 통을 보고 깜짝 놀랐다. “아빠, 나 휴대폰 액정이 깨져서 임시로 친구 전화를 쓰고 있어. 급히 처리해야 할 일이 있어 그런데, 혹시 내 통장 잔액이 얼마인지 알려 줄 수 있어?” 보낸 이는 분명 딸아이의 이름으로 된 계정이었다. 최 씨는 평소 딸과 카카오톡으로 자주 대화해 왔고, 메시지의 프로필 사진과 말투도 익숙했다. 의심할 틈도 없이 “왜, 무슨 일이야?”라고 문자 곧바로 답장이 왔다. “학교 프로그램 결제를 해야 하는데 앱 접속이 안되서 그래요. 아빠, 인증서랑 계좌 비밀번호 좀 알려줘.” ‘우리 딸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상대가 묻는 대로 정보를 알려주고 말았다. 그 후 상황은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졌다. 휴대폰으로 은행 계좌에서 거액이 빠져나갔다는 문자 알림이 오더니 아내 연락이 두절됐다. 그제서야 딸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한 최 씨는 메신저 피싱을 당했음을 알아차렸다.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해 금전이나 정보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받으면 우선 당황하지 말고, 반드시 본인에게 직접 전화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요구하는 계좌 명의가 다르거나 원격제어 앱 설치를 요구한다면 100% 사기다. 평소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가족 관계나 금융 관련 정보를 함부로 올리지 말고 여러 인터넷 서비스에서 비밀번호를 중복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작은 개인정보 유출이 눈덩이처럼 커져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부를 수 있다.

과거의 사기꾼들은 주로 대면 접촉을 통해 정보를 얻었지만 요즘 범죄자들은 인터넷에 흩어진 데이터 조각들을 수집해 표적을 정한다. 이를테면 SNS 계정을 살살이 살펴 경제·정서적으로 취약한 사람을 골라낸다. 실제로 특정 연령층(주로 노년층이나 20대 초반 등)만 표적 삼아 문자 사기를 벌인 경우도 있었다. 자신들을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이라고 사칭해 “지원금 드립니다” 같은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이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비밀번호도 문제다. 아직도 많은 사람이 전화번호 뒷자리나 생일 등 추측하기 쉬운 번호를 비밀번호로 쓴다. 심지어 여러 인터넷 서비스에 같은 비밀번호를 반복 사용하기도 한다. 하나만 뚫려도 연쇄적으로 탈탈 위험이 커진다. 실제로 한 해

커는 공개 석상에서 “사람들은 은행 비밀번호조차 본인 생일이나 1234 같은 쉬운 조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름이나 생일처럼 추측 가능한 비밀번호를 피하고, 서비스마다 서로 다른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것이 기본이다. 휴대폰에도 화면 잠금, 개별 앱 비밀번호 설정, 2단계 인증 등 다중 보안장치를 걸어 두는 것이 좋다.

혹시 사기 피해를 당했다라도 자신을 지나치게 책망하거나 부끄러워할 필요 없다. 누구나 속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용기를 내어 피해 사실을 인정하고 주변에 알려야 한다.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심리적 회복이 빨라진다.

메신저 피싱을 예방하려면 평소에 내 정보를 지키는 습관을 생활화해야 한다. SNS에 가족이나 금융 관련 내용을 함부로 공개하지 말고 각종 사이트에 가입할 때도 개인정보 제공 동의는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 원격제어 앱 설치 요구는 무조건 거부해야 한다. 공공기관이나 금융회사 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원격제어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는다. 작은 개인정보 유출이 눈덩이처럼 커져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 ‘사기 프로파일링’ 저자

청년 금융정책도 ‘핀셋 지원’ 필요



기지수첩

안승진
(금융부)

정부가 무주택 청년의 주거 지원을 위한 ‘청년주거지원3중세트’를 발표했다. ‘청년미래적금’과 ‘청년형ISA’에 이어 올해 발표된 3번째 청년 금융정책상품이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생애주기별 금융자산·소득 형성’을 주요 국정 과제로 선정했다. 각종 정책상품을 통해 청년세대에 충분한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하고, 주거를 비롯한 영역에서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목표다.

정부 방침에 따라 청년 세대를 위한 정책 상품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가 당초 320만명의 가입을 예상했던 ‘청년미래적금’은 1차 모집에

서 138만명을 모집하는 데 그쳤다.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한 소득 요건이 연 7000만원 이하로 제한됐고, ‘우대형’과 ‘기본형’ 간 이차율 차이도 컸다. 월 최대 50만원의 납입액도 청년 세대에게 작지 않은 액수다.

내년 상반기 출시 예정인 ‘청년형ISA’도 비판을 받는다. 청년형ISA는 기존 ISA계좌(종합자산관리계좌)와 달리 해외투자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한도 이월도 불가하다. 기존 ISA계좌와 비교해 상품 선택의 폭이 좁고, 꾸준한 납입을 요구해 자율성도 낮다. 더군다나 ‘청년미래계좌’와의 중복가입도 불가능해, 청년미래적금을 포기하고 청년형ISA를 선택할 요인이 크지 않다.

정부가 13일 공개한 청년 주거안정 대책 ‘청년주거지원 3중세트’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번 지원 방안에는 월세 거주 청년이 비슷한 지출으로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이 포함됐다. 그러나 지원 범위는 가격 상승 가능성이 크지

않은 4억원 미만의 비(非)아파트로 한정됐고, ‘월세와 비슷한 지출’로 제시한 납입 기간은 30년에 달한다. 소득기준도 연 7000만원으로 제한됐다.

최근 정부의 청년정책상품이 비판받는 것은 수혜 기준이 엄격한 반면, 지원 내용은 기초자산에 기반한 ‘자산형성 지원’에만 치중하고 있어서다. 고소득 청년은 저축 여력이 있어도 혜택이 작아지거나 가입이 불가능하며, 소득이 불안정한 저소득 청년은 가입과 유지가 어려워 충분한 혜택을 받지 못한다. 수혜 기준에는 청년 개인의 소득만 고려하고 있어 ‘부모찬스’에 대한 논란도 뒤따른다.

정부는 최근 주택금융의 정책 기조로 ‘핀셋 지원’을 제시했다. 도움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혜택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청년 정책 금융상품의 ‘사각지대’가 여전한 만큼, 정책 금융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여러 청년들을 위한 ‘핀셋 지원’도 고려해야 할 때다.

/ asj1231@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8월 14일 (음 7월 2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동하세요. 60년생 이를 미루면 후에 큰 일이 닥쳐옵니다. 72년생 초지를 관찰하면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84년생 어려움을 와도 피하지 마세요.



49년생 마음을 순하게 먹으세요. 61년생 확실히 유지한다면 큰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73년생 이성운이 불리하니 조심하세요. 85년생 직장문제는 잠시 잊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50년생 치우치지 않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2년생 확실한 계획을 가져야 실패를 줄 수 있습니다. 74년생 동료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86년생 직장인은 다툼을 피하세요.



51년생 적극 적으로 나아가면 즐거운 하루가 됩니다. 63년생 기다리면 좋은 운이 옵니다. 75년생 선불리 행동하지 마세요. 87년생 뒷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52년생 상대방에게도 좋은 기억으로 남게됩니다. 64년생 현재의 고생이 나중에는 좋은 결과가 됩니다. 76년생 흔들림 없이 행동하는 게 좋습니다. 88년생 약한 자를 정벌하는 것이 최선책입니다.



53년생 타인과 갈등은 원만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5년생 선불리 버티지 말고 상황을 모면해야 합니다. 77년생 긴장을 늦추지 않아야 합니다. 89년생 나태한 생각은 버리세요.



54년생 만사가 손에 잡힐 듯하지만 소득은 없습니다. 66년생 억지로 밀어부치지 마세요. 78년생 조용히 심신을 연마하며 좋은 순간을 준비하세요. 90년생 기다림을 즐겨 보세요.



55년생 참을 인자를 가슴에 새겨 두세요. 67년생 교통사고를 주의하세요. 79년생 지극히 평범하고 무난한 운세입니다. 91년생 철저한 무저항 주의로 나가기야 당신에게 손해가 없습니다.



56년생 지금은 전진할 때가 아닙니다. 68년생 뒷사람에게 실수 우려되니 조심해서 행동하세요. 80년생 지나친 자만심은 금물. 92년생 희망을 이루고, 주위사람에게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57년생 신앙을 가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69년생 지금 행동하는 것은 아무런 이득이 없습니다. 81년생 새로운 일에 착수하는 것은 불리합니다. 93년생 먼 곳으로의 여행은 길합니다.



58년생 직장운, 금전운 모두 좋습니다. 70년생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라면 이를 수 있습니다. 82년생 모든 운이 따르니 대방하게 행동하세요. 94년생 기쁜 소식이 들려옵니다.



59년생 조심하면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71년생 만반의 준비를 다하여 그날을 기다려 보세요. 83년생 조만간 좋은 결과가 따를 것입니다. 95년생 노력의 결과가 점점 나타납니다.



김상회의 四季

워렌 버핏 투자

주식시장이 불타올랐다. 대한민국 반도체주를 이끄는 쌍두마차인 삼성과 SK하이닉스로 인해 대한민국의 주가가 사상 최고조를 찍는 기염도 토했다. 미국 주식시장의 하루 장 시장의 출발과 마감의 향방에 따라 요동치던 것이 우리 금융시장의 당연한 모양새였는데, 토종 개미투자자들의 유례없는 투자로 인해 전 세계 금융시장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추이를 지켜보게 만드는 진풍경도 생겼다. 여기에는 주식시장을 복돋우려 한 정부의 기조도 한몫했지만 무엇보다 전 세계적으로 AI 산업이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면서 반도체가 필요불가결한 요소가 된 탓이기도 하다. 올해 구십육세인 워렌 버핏, 사람들은 그의 주식투자 성공을 부러워하며 투자기법을 사서 읽는다. 그런데 하나 재밌는 것은, 그의 성공을 부러워하면서도 그의 투자기법을 따라 하지는 않는다.

즉, 버핏은 가치주를 10년 이상 장기 투자하는 데 반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단타에 목숨을 거는 것이다. 그도 모든 종목에서 다 성공을 이루는 것은 아니었지만 회사의 경영성과와 가치를 보아가며 묵묵히 기다린 결과는 연평균 30% 이상의 결실을 안겨다 주었고 시간이 흐를수록 배당수익까지 더해지며 ‘오마하의 현인’이라는 소리까지 얻게 된다. 얼마 전에 자신의 이름을 건 ‘버핏과의 점심’이 4년 만에 다시 열리면서 전 세계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것이다. 이번에는 단 한 번의 식사 자리가 무려 135억원에 낙찰됐다는 소식인데, 이렇게 비싼 식사 자리는 단순한 식사를 넘어 그의 투자 철학과 인생 조언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자리라서 더 인기가 높다. 아시다시피 ‘버핏과의 점심’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닌 가장 유명한 자선 경매 행사 가운데 하나다. 경매 수익금은 빈민 지원단체에 기부되어 빈곤 문제 해결과 사회적 지원에 쓰인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974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078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 훈련형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결합형스도쿠

스도쿠3650

결란스도쿠110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9	1	6	2	8	9	8	7
2	8	7	8	9	6	1	8
9	8	8	7	9	1	6	2
1	2	9	9	6	8	7	8
8	9	2	9	1	7	8	6
7	6	8	2	8	2	9	1
6	7	1	8	2	9	2	8
8	8	9	6	7	2	2	1
2	9	2	1	8	9	8	7

1	9	6	7	2	2	9	8
2	8	2	6	8	9	7	1
9	7	8	9	1	8	2	6
9	8	7	2	9	1	2	6
8	6	2	8	9	7	1	2
2	9	1	2	8	6	9	8
8	1	9	8	7	2	6	9
6	2	9	9	2	8	7	1
7	2	8	1	6	9	8	2

“무대, 하나의 캔버스로… 예술의 확장 입체적으로 느껴보길”



인터뷰

최혜경 선아예술단 이사장

국가무형유산 ‘승무’ 이수자이자 교육 현장과 무대를 누벼온 최혜경 이사장이 사단법인 선아예술단을 이끌고 깊이 있는 예술적 도전에 나선다. 2025년 서울시 전문예술법인 지정에 이어 올해 시니어 문화예술 교육 체계 정립 등 활동 영역을 넓혀온 선아예술단이 선보이는 ‘2026 선아예술단 프로젝트-춤추는 캔버스’가 그 무대다.

이번 공연은 회화를 무용수의 움직임과 빛, 음악, 영상으로 확장하는 무용·회화 융복합 퍼포먼스다. 개막을 앞두고 최혜경 예술감독을 만나 기획 배경과 전통에 대한 예술관, 관객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들었다.

-이번 ‘춤추는 캔버스’를 기획한 계기는 무엇인가요?

“시작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선아예술단 창단 멤버이자 오랜 지기인 현대무용 전공 선배가 화가로 전향해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색채가 주는 감정과 그림 속 움직임에 매료됐어요. 그때부터 언젠가 그림에서 받은 감동을 춤으로 풀어내고 싶다는 생각을 품었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지나 여러 작가들과 교류하면서 그림을 바라보는 저만의 관점이 생겼고, 회화와 몸의 움직임을 연결할 가



최혜경 선아예술단 이사장이 ‘춤추는 캔버스’ 프로젝트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선아예술단 이끌고 ‘예술적 도전’ 회화의 확장… 융복합 퍼포먼스

화백 4명의 작품, 하나의 공연으로 전통무용과 새로운 표현방식 융합

분야별 전문가 모인 대형 프로젝트 춤·그림·영상 통해 예술 경험하길

능성도 구체화했습니다. 선아예술단이 전통을 그대로 재현하는 데 머물지 않고 회화를 춤으로 읽어내는 작업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네 명의 화백을 하나의 공연으로 연결하는 과정은 어떻게 진행됐나요?

“네 작가와는 오랜 인연과 신뢰가 바탕이었습니다. 30년 가까이 알고 지낸 작가도 있고, 온라인을 통해 10년간 교류하다 만난 작가도 있습니다. 서로 다른 작품 세계를 하나로 확립화하기보다 각자의 색과 에너지를 살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작가들의 색채와 화면 분위기를 의상과 소품, 무대 영상에 반영했고, 극작가와도



‘춤추는 캔버스’ 포스터

함께 각자의 삶과 철학을 존중하면서 하나의 서사를 만들어갔습니다. 서로 다른 세계가 만났을 때 오히려 더 풍성한 무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공연의 마지막 ‘공명’을 통해 관객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모두가 똑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개성을 지닌 채 서로의 울림에 반응하고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호흡하는 순간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관객들이 느끼셨으면 합니다.”

-전통무용을 기반으로 활동하면서도 융복합 공연을 계속 시도하는 이유와 이사장님에게 전통은 어떤 의미죠?

“예술적 뿌리는 언제나 전통에 있습니다. 하지만 선아예술단은 전통에만 머무르지 않고 전통과 창작을 연결하는 활동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이 시대의 관객들에게 고루한 춤만 보여드릴 수는 없기에 새로운 표현 방식과의 만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은 단순히 동작을 익히

는 것이 아닙니다. 원형과 정신은 지키되 그것을 오늘날의 사람들과 어떻게 만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예술가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40여 명이 참여하는 대형 프로젝트인 만큼 과정도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제작 규모와 재정적인 부분이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회화 전시와 무대 공연이 동시에 이뤄져야 했고 감독진만 8명에 달할 만큼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했습니다. 인간비와 제작비 부담 속에서 예술과 현실 사이의 균형을 찾는 과정도 필요했습니다. 이번 작업을 통해 서로 다른 분야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연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시너지를 만드는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객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가요?

“이번 공연은 단순히 무용이나 미술 작품 하나를 관람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회화가 영상이 되고, 의상이 되며, 음악과 무용수의 몸짓으로 확장되는 과정을 통해 예술을 여러 감각으로 입체적으로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무대가 하나의 거대한 캔버스가 되는 동안 관객 여러분 각자의 시선으로 춤과 그림을 비교하고 음미하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metro

문화 단신

베테랑 PR 전문가의 일상언어 전략 “롯데타워 야경 보며 클래식 공연 즐겨요”

말 한마디의 무게가 어느 때보다 무거운 시대다. 미디어와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단 한 번의 실언으로 수년간 쌓아 올린 신뢰가 순식간에 무너지는 광경을 우리는 자주 목격한다. 인공지능(AI)이 매끄럽고 완벽해 보이는 문장을 쏟아내는 오늘날, 역설적으로 인간 고유의 진정성과 순발력 있는 판단력은 개인의 생존을 좌우하는 가장 강력한 경쟁력이 됐다.

오비맥주 홍보이사이자 20년 차 베테랑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인 백주환 저자의 ‘기억되는 사람은 다르게 말한다’는 이처럼 예측 불가능한 위기 상황에서 나를 지키고 상대를 설득하는 실전 언어 전략을 담은 책이다.

기업의 최전선에서 수많은 위기 대응 언론 브리핑과 CEO 인터뷰를 진두지휘해 온 저자는 기업 홍보의 엄숙한 노하우를 개인의 일상과 직장 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답변 프로세스로 재구성해 제시한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압박 질문과 직면한다. 면접관의 날카로운 송곳 질문, 회의실에서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지적, 일상에서 곤란함을 유발하는 개인적인 질문 앞에서 대다수는 머릿속이 하얗게 바위지며 질문에 끌려다니거나 당황한 나머지 선버른 답변으로 실언을 저지르곤 한다. 책은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단순한 기술의 부재가



기억되는 사람은 다르게 말한다
백주환 지음 / 스노우폭스북스P

아닌 ‘전략의 부재’에서 찾는다.

저자는 질문의 페이스에 휘말리지 않고 대화의 주도권을 끌어오는 핵심 전략으로 3단계 답변 프로세스를 제안한다. 상대가 던진 질문의 겉포장에 속지 않고 이면의 진짜 의도를 파악하는 ‘질문 해체’, 예상치 못한 공격을 방어하며 논리적 입장을 정리할 시간을 버는 강력한 방패인 ‘홀딩 스테이트먼트(Holding Statement)’, 그리고 대화의 판을 바꾸며 상대를 설득하는 예리한 창인 ‘핵심 메시지’가 그것이다.

이 책의 가장 큰 강점은 압도적인 현장감과 분석의 입체성에 있다. ▲삼성 갤럭시 노트7 발화 사태 ▲토요타 리콜 ▲애플 배터리 이슈 등 글로벌 기업들의 명암을 가른 메시지 잔혹사와 성공 사례를 통해 기업 위기 대응의 정수를 명쾌하게 풀어낸다.

/신원선 기자

롯데, 22·23일 야의 클래식공연 열어

롯데는 롯데월드타워 월드파크에서 22일, 23일 오후 7시 ‘2026 롯데서머 클래식 콘서트(LOTTE Summer Classic Concert)’를 연다. 롯데월드타워 물이 야외에서 선보이는 첫 클래식 공연이다.

이번 공연은 롯데그룹이 주최하고 롯데문화재단이 주관하며 송파구가 후원한

다. 시민들이 롯데월드타워 야경과 함께 클래식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됐다.

공연은 ‘롯데가 초대하는 도심 속 클래식’을 주제로 12부에 걸쳐 약 2시간 동안 진행된다. 정통 클래식부터 영화·애니메이션 OST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1부에서는 모차르트의 세레나데 ‘하이네 클라이네 나흐트무지크’, 바흐의 ‘G선

상의 아리아’, 피아졸라의 ‘리베르 탱고’ 등 대중에게 친숙한 클래식 곡을 연주한다. 2부에서는 영화와 애니메이션 OST를 오케스트라 연주로 선보인다.

공연에는 바이올리니스트 대니 구와테너 존노, 반도네오니스트 고상지가 참여한다. 지휘자 정한결과 디토 체임버 오케스트라도 무대에 오른다.

공연은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일부 관람 구역은 사전 초청 이벤트 당첨자를 대상으로 별도 운영한다.

/김서현 기자 seoh@

대작과 특별관의 만남… 영화관 흥행 전인

극장가, 팬데믹 이후 최대 회복세 특별관 관객 늘어… 다화차 관람 증가

올여름 극장가가 팬데믹 이후 가장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대작 영화의 잇따른 흥행에 더해 SCREENX·4DX·IMAX 등 특별관을 찾는 관객이 늘면서 극장 재방문과 다화차 관람도 증가하는 모습이다.

13일 CJ CGV 데이터전략팀에 따르면 7월 29일부터 8월 9일까지 전국 영화관 관객은 약 955만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6% 늘어난 수치로, 2019년 이후 여름 성수기 기준 가장 높은 수준이다. 무더위와 휴가철을 맞아 쾌적한 실



오디세이, 스파이더맨 특별관 포스터. /CGV

내에서 영화를 즐기는 ‘극강스’ 수요가 관객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CGV 방문 고객도 같은 기간 전년 동기 대비 58.1% 증가했다. 특히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와 ‘오디세이’가 특별관 흥행을 이끌며 관객을 극장으로 불러들였

다. SCREENX·4DX·IMAX 등 주요 특별관은 70~80% 수준의 높은 객석률을 기록했다.

관객들의 영화 소비 방식도 달라졌다. 해당 기간 CGV 방문 고객 중 2회 이상 영화를 관람한 고객은 11.3%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56.8%는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와 ‘오디세이’를 모두 관람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작품의 흥행이 서로의 관람 수요를 끌어올리는 효과를 낸 셈이다.

다화차 관람객 중 15.7%는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를 반복 관람했으며, 절반가량은 SCREENX·4DX·IMAX 등 특별관을 이용했다. 같은 영화라도 상영 포맷에 따라 다른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점이 N차 관람을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원선 기자



▲트럼프 지지율 33%, 최저치 경신…11월 중간선거 앞두고 비상
/사진 뉴시스
▲“日다카이치, 패전일 야스쿠니 참배 보류…韓과 양호한 관계 고려”

▲트럼프 지지율 33%, 최저치 경신…11월 중간선거 앞두고 비상
▲“日다카이치, 패전일 야스쿠니 참배 보류…韓과 양호한 관계 고려”

▲美국무부 “원정출산 근절 TF 출범…전세계 개인 이력 검토”
▲엔화, 美 금리인상 관측 후퇴에 1달러=159엔대 전반 소폭 상승 출발



한림의료원
의료진 아이디어
사업화
L2



Life

삼성복지재단
마음건강 교육
전국 보급

L4



2026 청소년 마음성장 프로그램 참여 교사 연수

빛과 물이 빚어낸 예술 반짝이는 윤슬 따라 걸어볼까

아파트의 미학(美學)

춘천 아테라 더 퍼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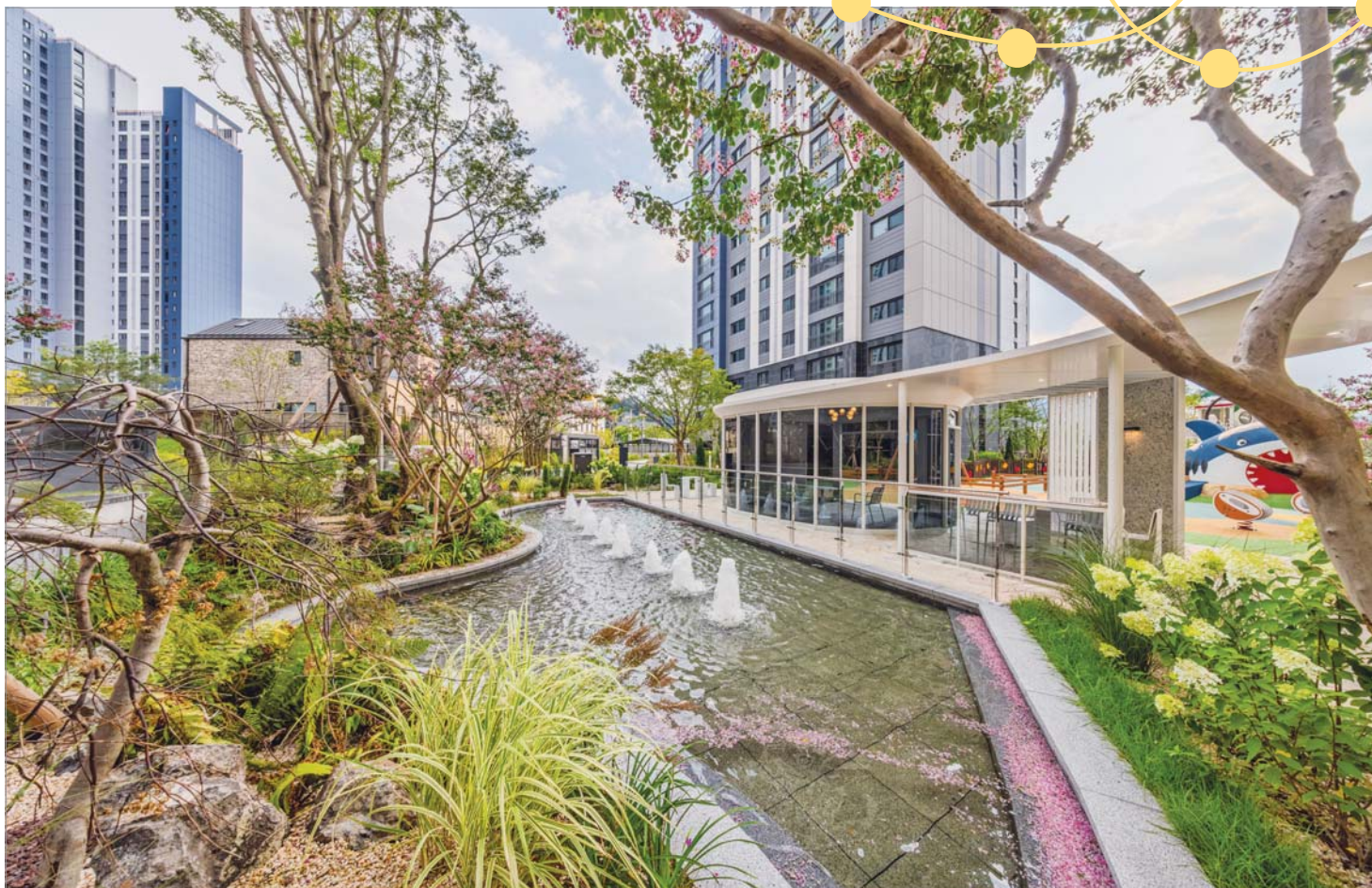
다음달 입주를 앞둔 '춘천 아테라 더 퍼스트'. 단지에 들어서면 101동 외벽에서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윤슬같은 조형물이 가장 먼저 맞아준다. 입주가 아직 한 달여 가량 남았지만 조경을 비롯해 마무리 작업까지 대부분 마친 상태로 사전 점검 당시에도 입주 예정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춘천 아테라 더퍼스트는 강원도 춘천시 동면 만천리 일원에 지상 29층 8개동, 총 543가구 규모다. 타입별로는 전용 59㎡와 116㎡가 46가구씩이며, 84㎡는 A와 B타입이 각각 364가구, 87가구다.

단지가 자리잡은 동면 일대는 총 3200세대의 대규모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다. 도심과 동떨어진 외곽의 택지가 아니라 만천천을 사이에 두고 기존 주거 중심지인 후평동과 맞닿아 있다. 도보 거리에 만천초와 춘천여고 등 학교를 비롯해 인근에 대형마트와 후평동우체국, 춘천성심병원 등 생활에 필요한 인프라가 모두 위치했다. 특히 공사가 한창인 '춘천 아테라 에듀파크'가 바로 옆에 위치해 내년이면 총 1000세대 인파의 아테라 브랜드 타운이 되기도 한다.

춘천아테라더퍼스트는 신흥주거타운이라는 입지에 금호건설의 주거 브랜드 '아테라(ARTERA)'를 춘천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면서 '아트 인 리빙(ART in Living)'을 적용하는 두 번째 단지로 낙점됐다. 101동 외벽을 장식한 바로 그 작품이다.

아트 인 리빙은 금호미술관이 발굴한 금호



분수와 수변시설, 티하우스가 어우러진 단지 중앙광장.

/금호건설

다음달 입주 앞둔 총 543가구 단지
조경 비중 43.5%… 법정기준 약 3배

금호건설 주거브랜드 '아테라' 선배
금호영아티스트 출신 작가 작품 설치
생활형 예술공간 '아트 인 리빙' 적용
소양호 영감받은 작품으로 외벽 꾸며

중앙광장 분수와 어우러진 티하우스
수변시설 따라 정원·산책로 이어져
안개 미스트로 몽환적 분위기 연출
페플라스틱 재활용 '친환경 심터'도

영아티스트 출신 작가들이 아테라 단지의 공간 특성에 맞춰 작품을 직접 기획·설계·적용하는 예술 협업 프로젝트다. 단순한 미술 장식을 넘어 입주민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생활형 예술 공간'을 구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제22회 금호영아티스트로 선정된 송승준 작가가 참여했다. 송 작가의 '수면 위의 정원'은 춘천을 대표하는 소양호의 수변 식물에서 영감을 받았다. 햇빛이나 달빛이 비쳐 반짝이는 잔물결을 윤슬이라 하는데 아파트 외벽은 그대로 수면이 됐고, 시시각각 때에 따라 변하는 윤슬을 연출한다.

단지 정면으로 늘어선 소나무 군락이 눈길을 먼저 끌지만 조경의 하이라이트는 티하우스

가 위치한 중앙광장이다. 분수와 함께 흐르는 동선이 단지 내 산책로와 수변 잔디공간, 어린이 놀이터까지 편리하게 이어지게 한다. 티하우스 역시 당초 설계보다 폭을 넓히고 개방감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바퀴 소통의 즐거움이 편안한 일상이 되어 흐르게했다.

사랑방 쉼터답게 정자수인 대형 팡나무가 곳곳에 식재됐으며, 주변 낮은 초화 사이로는 안개를 뿜어내는 미스트가 설치됐다. 실용적으로는 주변 온도와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고, 감성적으로는 몽환적인 분위기를 연출해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 분수를 바라보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은 물론 산책로 곳곳에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을 업사이클링한 테이블과 의자가 놓여졌다. 춘천 아테라 더퍼스트 전체 단지에서 조경이 차지하는 비중은 43.5%로 법정 기준 대비 약 3배에 달한다.

아이들 입장에서 하이라이트는 작은 워터파크를 옮겨놓은 듯한 물놀이터다. 오목한 놀이공간에 미끄럼틀과 물놀이 시스템이 어우러져 기존 아파트 단지에서는 보지 못했던 놀이환경을 구현했다.

가족 친화형 단지로 출입문 쪽에는 아이들이 승하차를 할 수 있는 키즈 스테이션이 위치했으며, 놀이터는 달빛에 걸쳐 흐르는 푸른 구름을 형상화해 어린이의 호기심과 모험심을 자극할 수 있도록 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metro



1 '아트 인 리빙(ART in Living)' 두번째 작품인 '수면 위의 정원'. 2 중앙광장에 식재된 초화 사이로 미스트가 안개를 뿜어내고 있다. 3 김우진 작가의 '사슴'



메트로 한줄뉴스



▲배드민턴 안세영, 부상 딛고 세계선수권 출격… 3년 만에 우승 도전 /사진 뉴시스

▲자정 넘어 침실 침범하는 경기장 '빛 공해'… "최소화 노력"

▲日축구협회장 "한국서 성접대 받은 심판들 사실관계 확인 중"

▲모델 송해나, 대한체육회 홍보대사 위촉… "함께해 영광"

▲한강 '작별하지 않는다' 낭독극 온다…제26회 SPAF 10월 개막

▲사형 앞둔 안중근이 남긴 8글자… "국제법이 대포만 못하다" 국내 귀환